



2025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결과자료집

우리 시각

서울문화재단
우리금융미래재단

목차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소개	4
	참여 작가 소개	6
	김우솔	8
	김채성	20
	김혜윤	30
	박준수	40
	박현우	50
	심규철	62
	이민우	72
	전민재	82
	최승완	94
	피주현	104
	2025 〈우리시각〉 사업 진행 과정	116
	실기 심의	118
	선정식 및 예술계 실무 이해 교육	122
	1:1 창작 멘토링	126
	장애예술기획전 현장 교육	136
	포트폴리오 제작 방향 교육	140
	조력자 네트워킹 교육	144
	입주작가 기획전시 현장 교육	148
	결과공유 워크숍	152
	참여 작가 소감	157

Contents	Introduction to <i>Woori Visual Arts</i> : A Nurturing Project for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4
	Artist Profiles	6
	Kim Woosol	8
	Kim Chaeseong	20
	Kim Hyeyun	30
	Park Junsoo	40
	Park Hyunwoo	50
	Shim Kyuchul	62
	Lee Minwoo	72
	Jeon Minjae	82
	Choi Seungwan	94
	Pi Juhun	104
	2025 Woori Visual Arts Program Schedule	116
	Technical Skill Evaluation	118
	Selection Ceremony and Professional Arts Practice Training	122
	One-on-One Creative Mentoring	126
	Field Education: Disability Arts Exhibition	136
	Portfolio Development Workshop	140
	Supporter/Facilitator Networking Workshop	144
	Field Education: Residency Artist Exhibition	148
	Outcome Sharing Workshop	152
	Participants' Testimonials	157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소개

<우리시각>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후원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예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잠재력 있는 시각예술 분야 신진 발달장애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작가에게는 1,000만원의 창작 활동비와 현직 미술작가와의 1:1 창작 멘토링, 포트폴리오 제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체계적 성장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재능 있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시각예술계 전문 작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 Nurturing Project for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ori Visual Arts is a program led by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ith the support of the Woori Future Foundation. It addresses gaps in existing support for disability arts by identifying and nurturing emerging visual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demonstrate strong potential.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artists receive a creative grant of KRW 10,000,000, one-on-one mentoring with practicing visual artists, portfolio development guidance, and a structured capacity-building program led by experts across relevant fields—providing a clear and systematic roadmap for artistic growth.

Through this support, talented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empowered to enter the professional visual arts community as independent artists.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문화재단은 2007년부터 장애예술인 대상 입주공간 및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역량 있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해왔습니다. 서울 최초의 장애인 대상 예술창작공간으로 시작한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22년 대학로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공간과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했으며, 장애예술 분야 인큐베이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19년간 약 5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을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장애예술인 공간으로서 장애예술 가치의 확산과 입주·비입주 작가의 예술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eoul Disability Arts Center

Since 2007,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as operated residency studios and support program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fostering the growth of many accomplished practitioners. Originally established as *Seoul Art Space Jamsil*—the first arts studio in Seoul dedicated to artists with disabilities—the space was relocated to Daehak-ro in 2022 and relaunched as the *Seoul Disability Arts Center*. It has since established itself as a leading hub for incubation in the field of disability arts.

Drawing on 19 years of experience supporting approximately 500 artists with disabilities, the Center serves as one of Seoul's representative spaces for disability arts. It continues to expand the value of disability arts while fostering the artistic development of both resident and non-resident artists.



김우솔

김우솔 작가는 실제 경험하거나 보았던 장면을 마치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를 고전 회화의 형식과 현대적 표현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그의 작업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특히 인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자, 문학가, 미술가, 음악가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을 화폭에 담아낸다. 이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지나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작가만의 소통 방식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명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전시회나 책을 통해 화가의 삶을 살펴보고 명화를 따라 그리며 그림과 가까워졌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그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로 아크릴이나 유화로 종이와 캔버스에 작업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드로잉으로 창작의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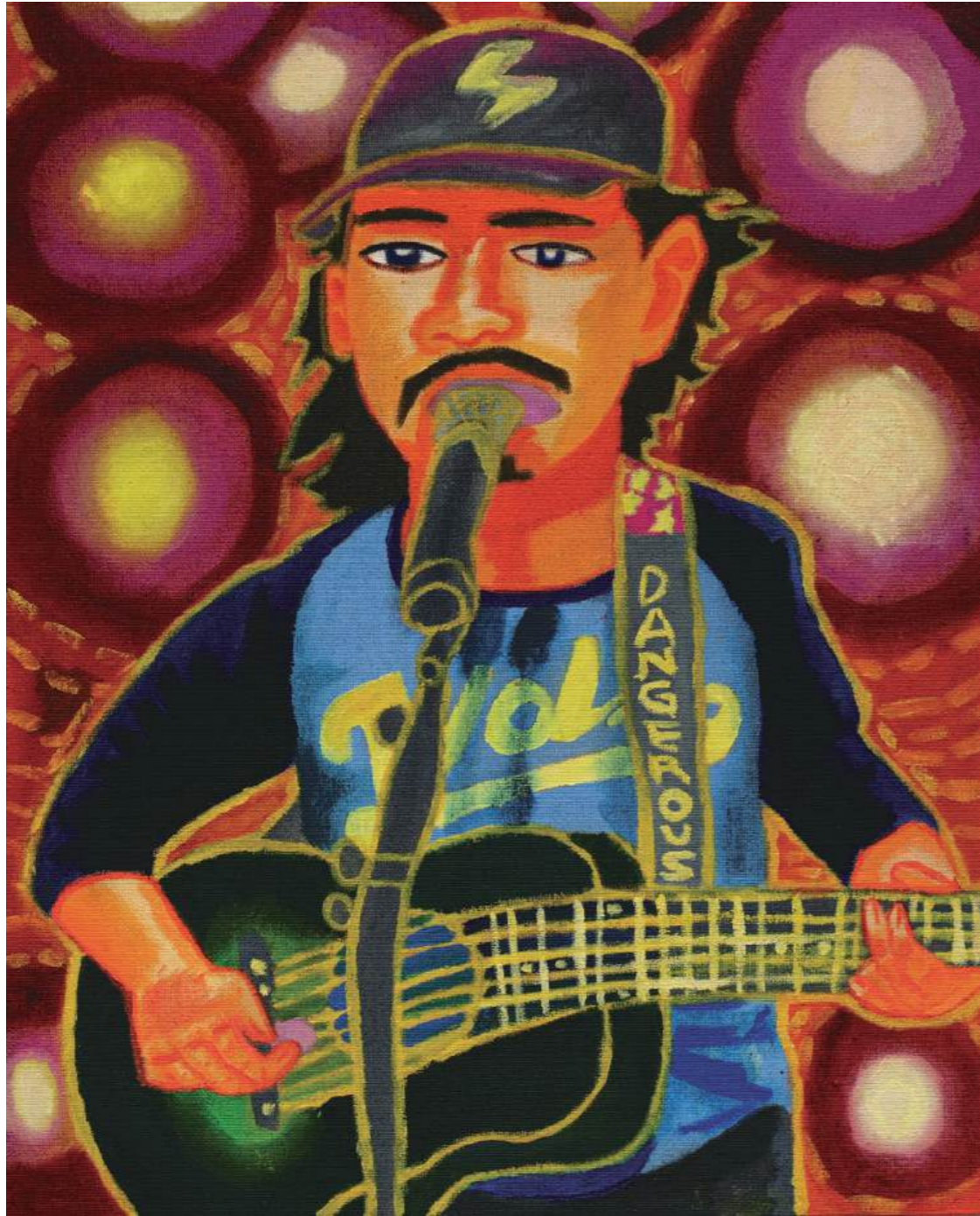
작가는 그림을 통해 마음속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알아가고 싶어한다. 자신의 작업이 스스로와 작품을 마주하는 이들 모두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Kim Woosol

Kim Woosol recalls scenes he has experienced or observed with photographic clarity and reconfigures them into new compositions that combine classical painting traditions with contemporary expression. His work evokes a feeling that is at once familiar and subtly unfamiliar. With a deep interest in people, he depicts a wide range of figures—scientists, writers, artists, and musicians—on his canvas. This process becomes a way of expressing thoughts and emotions he has found difficult to convey in everyday conversation, and a personal means of connecting with the world.

From an early age, he has been drawn to masterpieces. Through exhibitions and books, he explored the lives of painters and grew closer to art by recreating their works. These experiences naturally led him to begin his own painting practice. He has primarily worked with acrylic and oil on paper and canvas, and recently has been expanding his practice through digital drawing.

Through painting, He continues to explore how the landscapes of his inner world evolve. He hopes his work can offer a small sense of warmth both to himself and to those who encounter it.



모건 월렌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91×73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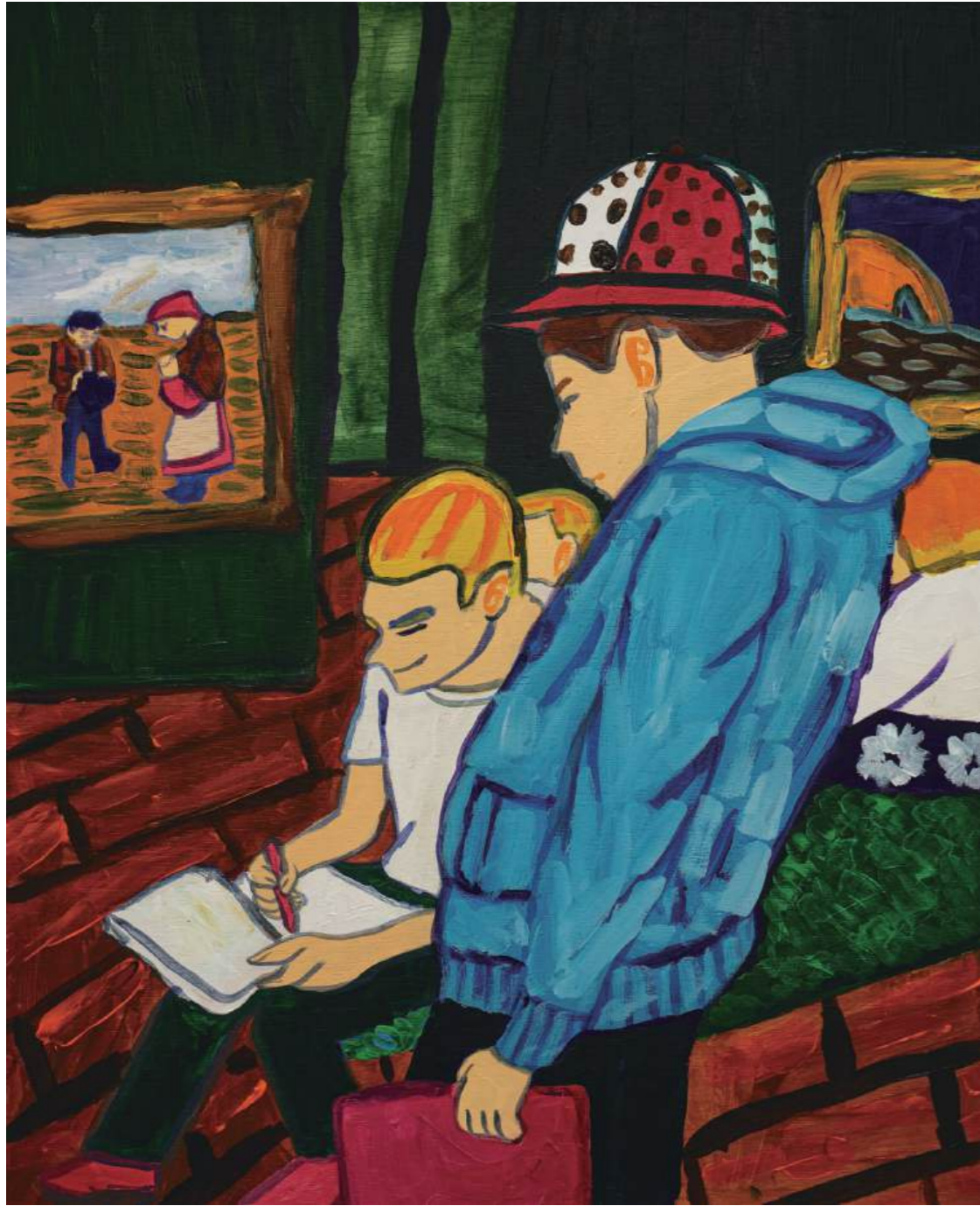
얼굴들
유토에 아크릴, 22×22×35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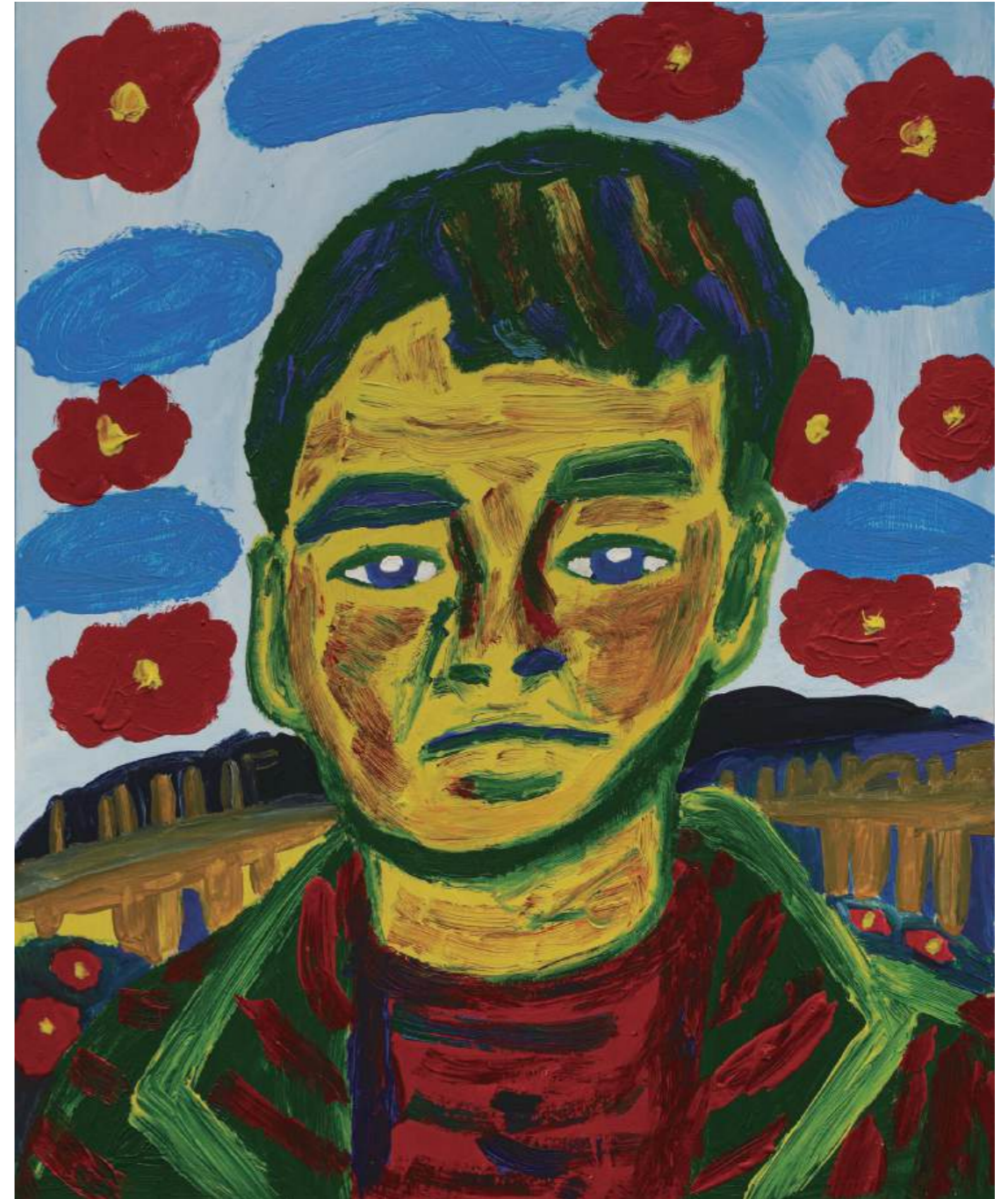
엄마랑 아빠랑
캔버스에 아크릴, 45.5×53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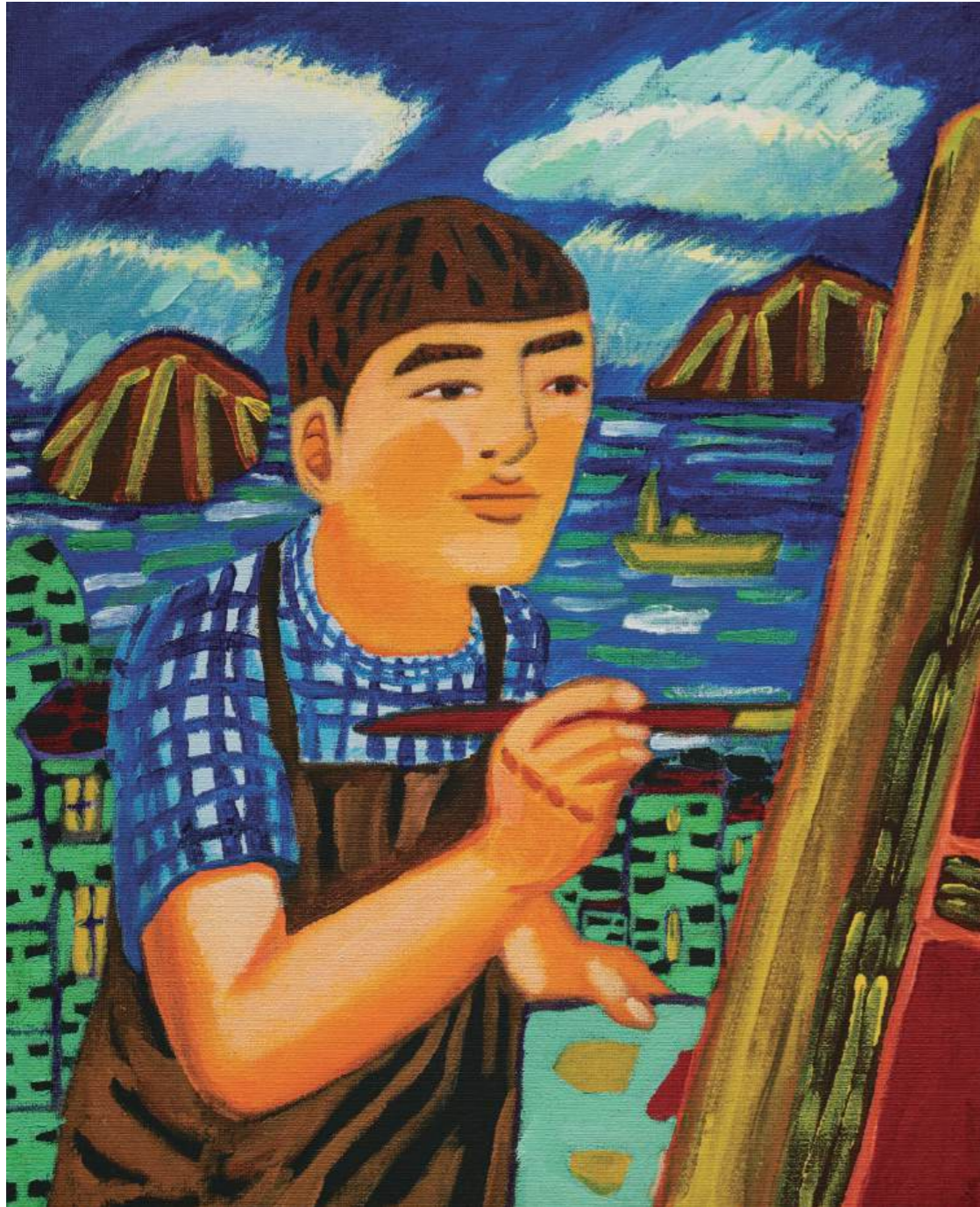
오랑주리 미술관에서(모네의 <수련> 앞에서)
나무 패널에 아크릴, 61×73cm, 2025



오르세 미술관에서
나무 패널에 아크릴, 65×53cm, 2025



자화상
나무 패널에 아크릴, 65×53cm, 2025



제주도를 생각하며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91×73cm, 2025



책상 위의 미술관 1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73×91cm, 2025

책상 위의 미술관 2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73×91cm, 2025



큐피드와 나
나무 패널에 아크릴, 45.5×53cm, 2025



폭풍의 언덕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91×116.8cm, 2025



김채성

김채성 작가는 섬세하고 정교한 채색을 기반으로, 대중문화 속 캐릭터와 스스로 만든 캐릭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생동감 있는 장면을 구축한다. 그의 캐릭터들은 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매개로 기능하며, 화면 속에 워트 있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작가의 작업은 팝적이고 도시적인 감각이 두드러진다. 스프레이 페인트와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래피티적 분위기를 만들고, 회화적 이미지와 기호, 색과 면을 결합해 현대적이고 활기찬 화면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매체 자체를 하나의 놀이처럼 다루며, 실제와 묘사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시각적 실험을 거듭한다.

작가의 초기 작업이 동물이나 우화의 소재처럼 순수한 이미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개인적 감정과 경험을 캐릭터에 투사하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깊이를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면서 회화의 표현 범위를 넓히고, 보다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대중적 이미지와 개인적 상상력을 결합해, 회화의 경계를 확장하며 작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Kim Chae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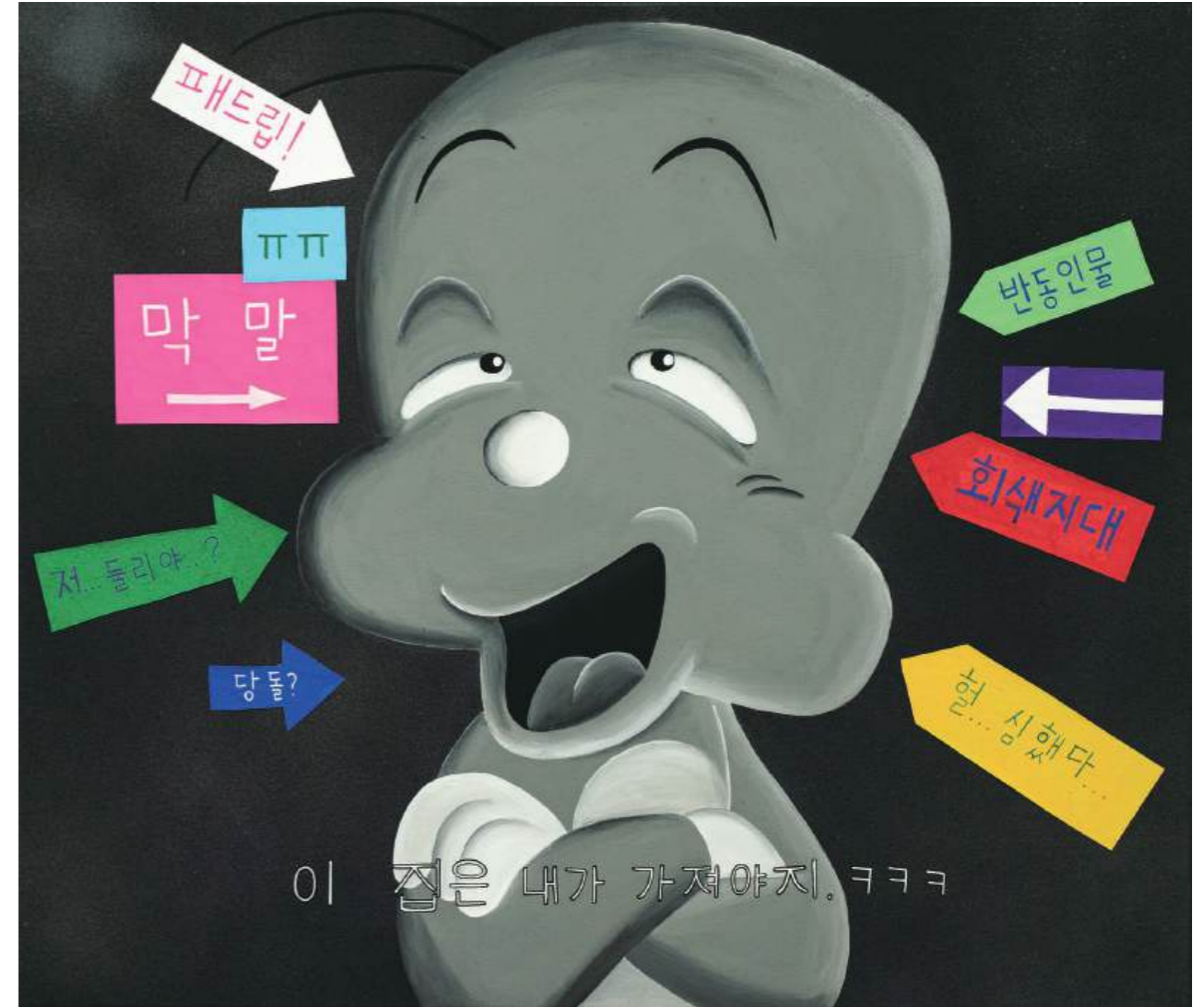
Kim Chaeseong constructs vibrant scenes through refined and meticulous coloring, freely combining characters from popular culture with figures of his own creation. These characters move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creating witty narratives within the composition.

His work carries a distinct pop and urban sensibility. Using spray paint and text, he introduces a graffiti-like atmosphere, bringing together painterly imagery, symbols, bold colors, and flat planes to form energetic, contemporary compositions. In this process, he treats the medium itself as a form of play, exploring the visual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re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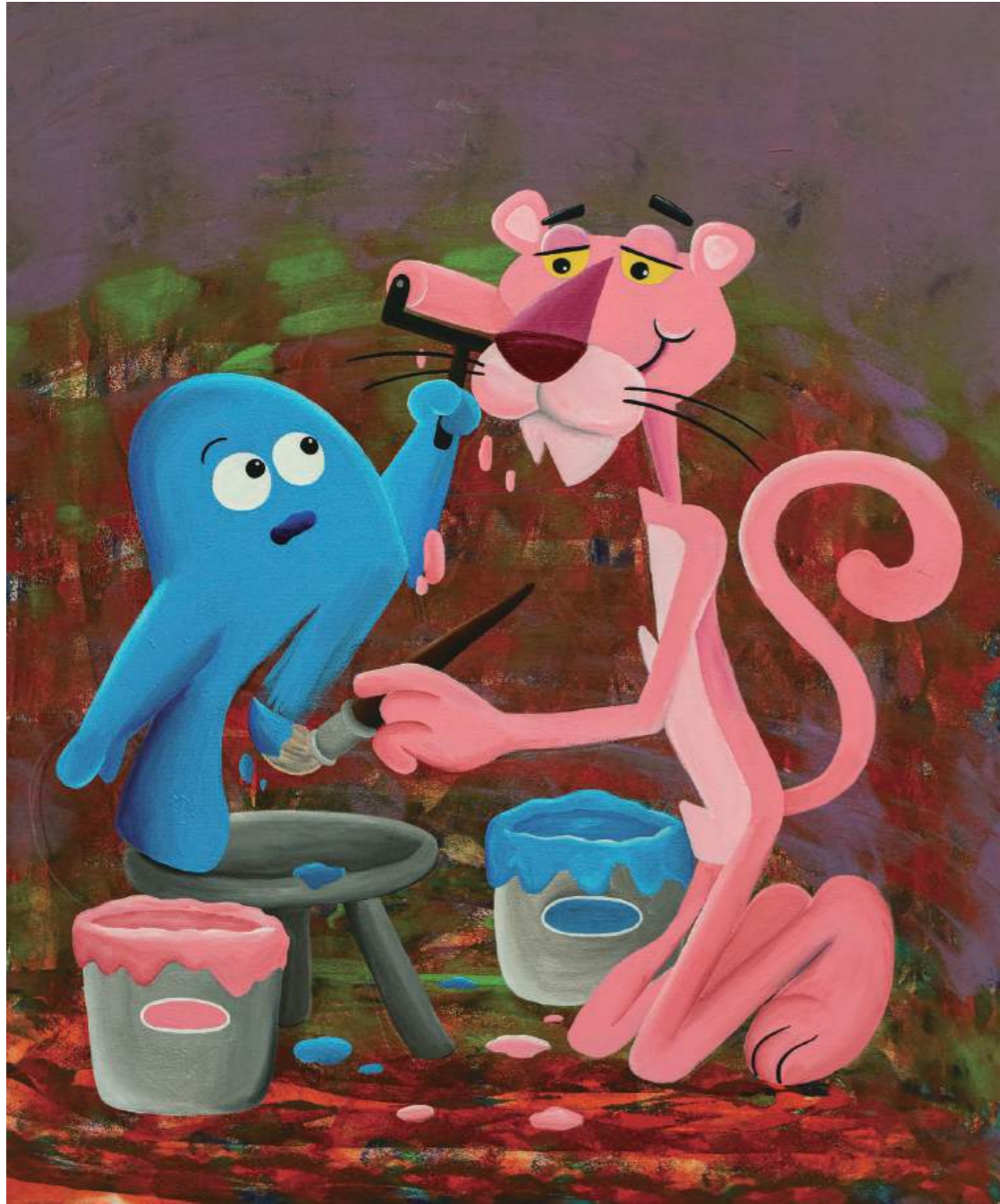
While his earlier works focused on pure, image-driven subjects such as animals and fable-like motifs, his recent practice has grown more layered. He now projects personal emotions and experiences onto his characters and, at times, conveys social messages in indirect ways. Recently, he has expanded his exploration of materials, approaching painting with a more spontaneous and open attitude. By merging popular imagery with personal imagination, he continues to develop a distinctive artistic world while pushing the boundaries of painting.



기린더하기얼룩말
 캔버스에 아크릴, 53.0×45.5cm, 2025



둘리2
 캔버스에 스프레이, 아크릴, 부분 콜라주, 53×45.5cm, 2025



색의 이중주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2025



〈핑크팬더, 몬스터 에너지 부스터〉 시리즈
캔버스에 스프레이, 아크릴, 부분 콜라주, 50×65.1cm, 2025



〈색으로 울리는 핑크팬더〉 시리즈
 캔버스에 스프레이, 아크릴, 부분 콜라주, 50×65.1cm, 2025



언어의 상징
 종이에 콜라주, 21×30cm, 2025



오줌천사

캔버스에 아크릴, 30cm, 2025

푸른 것을 두른 자

캔버스에 아크릴, 30cm, 2025



로테오 자본주의

캔버스에 아크릴, 40cm, 2025

AI의 체조시간

캔버스에 아크릴, 40cm, 2025



김혜윤

김혜윤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자, 마음을 전하는 언어이다. 하늘과 구름, 바다와 꽃 등의 자연 속 요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배경이자 관람자가 잠시나마 평온과 상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반려동물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들은 단순한 소재를 넘어, 인간과 자연, 현실과 상상을 잇는 다리가 된다. 작품 속에서 뛰놀고 장난치는 모습, 춤추고 노래하는 상상 속 장면들은 보는 이에게 따뜻한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일상의 소중한 기쁨을 기억하게 한다.

작가는 어린 시절 수채화로 그림을 시작해 현재는 색연필, 아크릴, 유화 등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각기 다른 질감과 색이 주는 표현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연과 생명, 동물들의 순간적인 모습들을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자신만의 재료와 기법을 끊임없이 실험한다. 앞으로도 자연과 생명, 그리고 반려동물에게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현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림을 통해 소중한 감정과 즐거움을 담아내고자 한다.

Kim Hyeyun

For Kim Hyeyun, painting is both another way of seeing the world and a language for expressing the heart. Elements of nature the sky and clouds, the sea and flowers form the backdrop of her work, creating spaces where viewers can momentarily experience calm and a sense of imagination.

The companion animals that appear in her paintings hold particular significance. More than simple subjects, they serve as bridges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Scenes of them running, playing, dancing, and singing bring warmth and gentle joy, recalling the small, often forgotten pleasures of everyday life.

She began painting with watercolor in childhood and now works across a range of materials, including colored pencil, acrylic, and oil. She explores the expressive possibilities of different textures and colors, continually experimenting with her own materials and techniques to vividly capture fleeting moments of nature, life, and animals. Inspired by nature, living beings, and her companion animals, she seeks to convey precious emotions and delight through paintings that move freely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까미 아이돌 댄스
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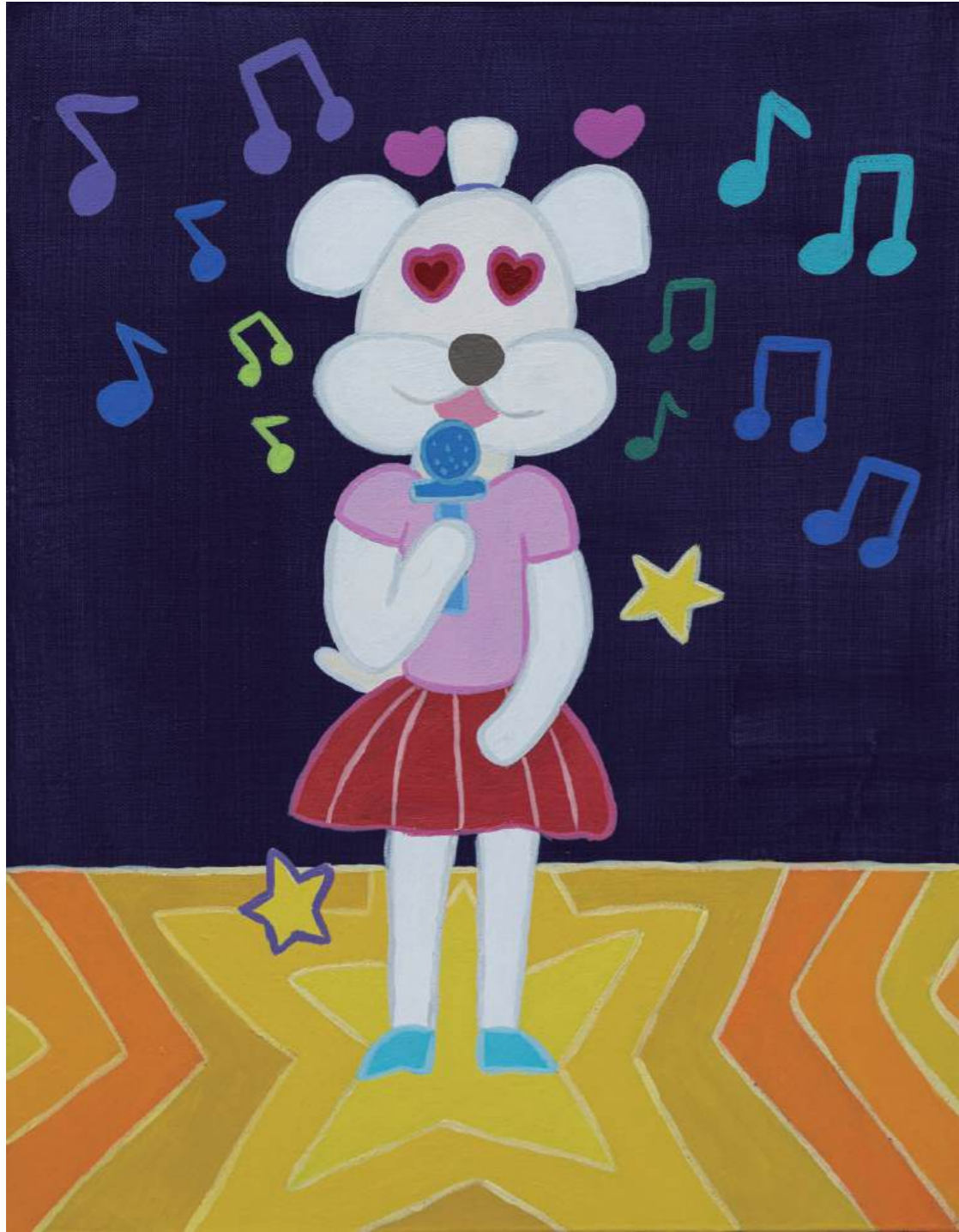
다롱이를 그리는 로미
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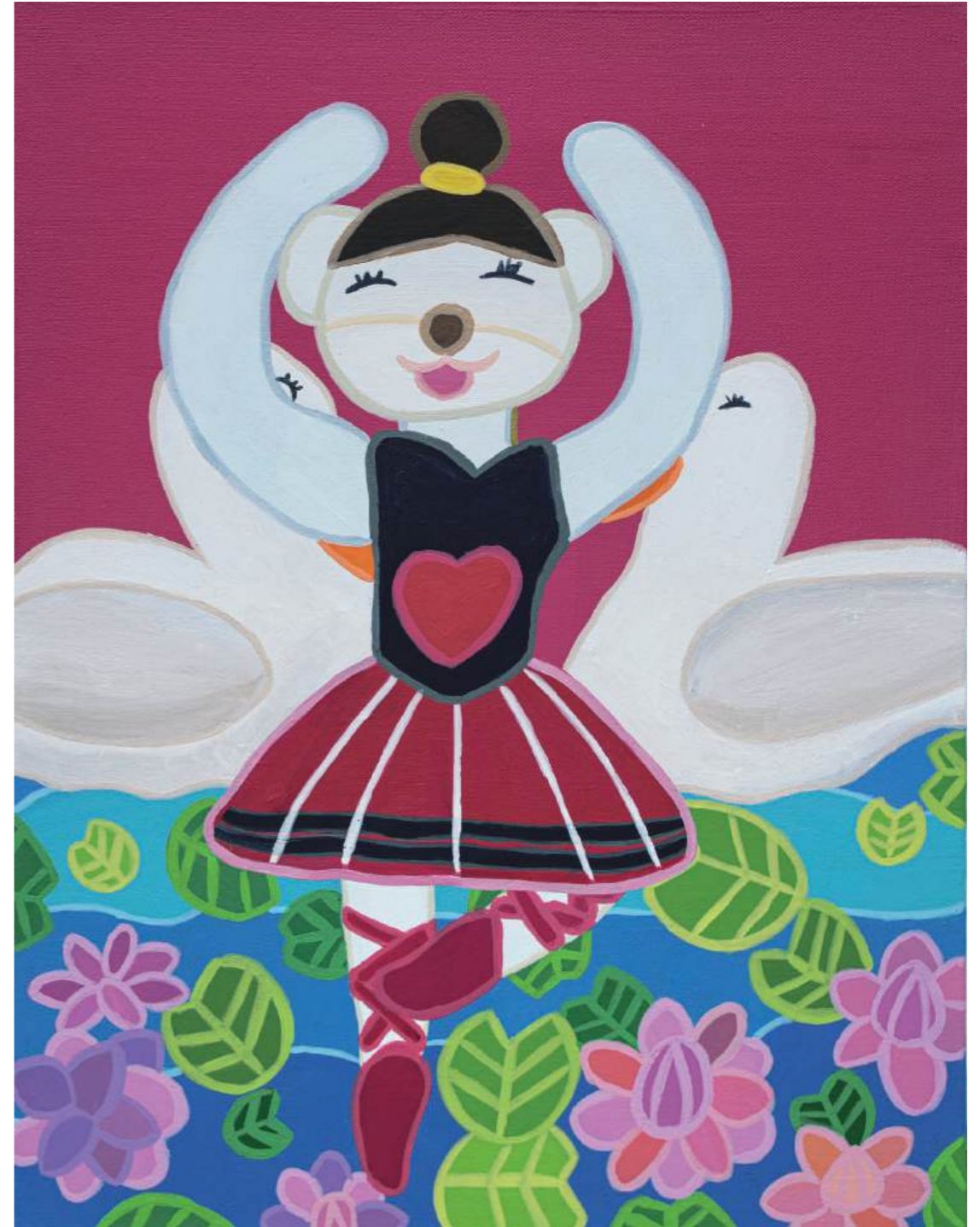
평화로운 꽃마을
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25



지붕 위에 부채춤
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25



싱어쇼
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25



연못 속의 발레리나
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25



우주 사물놀이
캔버스에 아크릴, 45.5×53cm, 2025



CAT 버스킹
캔버스에 아크릴, 62.6×72.7cm, 2025



박준수

박준수 작가는 큐브라는 도형 안에 공룡을 의인화한 '다피' 캐릭터를 담아 연결(Connection), 소통(Communication), 공감(Empathy)을 주제로 작업한다.

면과 면이 만나 입체를 이루고, 그 입체가 공간을 만들어내듯, 작가는 입체적인 구조가 주는 견고함과 공간의 편안함에 주목한다. 이 안락한 공간은 작가가 머물며 일상을 보내고, 꿈과 이상을 확장해나가는 개인적 세계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공간을 배경으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려내고자 하며, 큐브의 내면에는 모든 것을 품어내는 '포용(Inclusion)'의 의미를, 외면에는 구조적 질서가 가진 강인함을 담아낸다. 입체의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듯, 작가의 세계 또한 유연하고도 단단하게 구축된다.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울림과 공감의 방식은 달라진다. 작가에게 공간의 배치는 과거-현재-미래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큐브 속에 자신의 세계를 정성껏 빚어내는 창작 과정은, 작가와 관객 모두를 행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Park Junsoo

Park Junsoo explores the themes of Connection, Communication, and Empathy through "Daffy", an anthropomorphized dinosaur character contained within a cube.

Just as planes meet to form a solid and solids define space, he is drawn to the sense of stability offered by three-dimensional structure and the comfort created by space. This enclosed setting becomes a personal world where he moves through daily life while expanding his dreams and ideals. Within this space, he creates works that invite shared understanding. For the artist, the interior of the cube represents Inclusion—an openness that embraces all—while its exterior reflects the strength of structural order. As the inside and outside of a form come into harmony, his artistic world is built with both flexibility and resilience.

The way one shapes a "personal space" influences how emotions resonate and how empathy is experienced. For him, the arrangement of space connects past, present, and future into a single theme. The process of carefully shaping his world within the cube becomes a bridge that links the artist and the viewer through a shared sense of joy.



환희의 순간
캔버스에 아크릴, 72×90cm, 2025





어느 화려한 오후
캔버스에 아크릴, 72×90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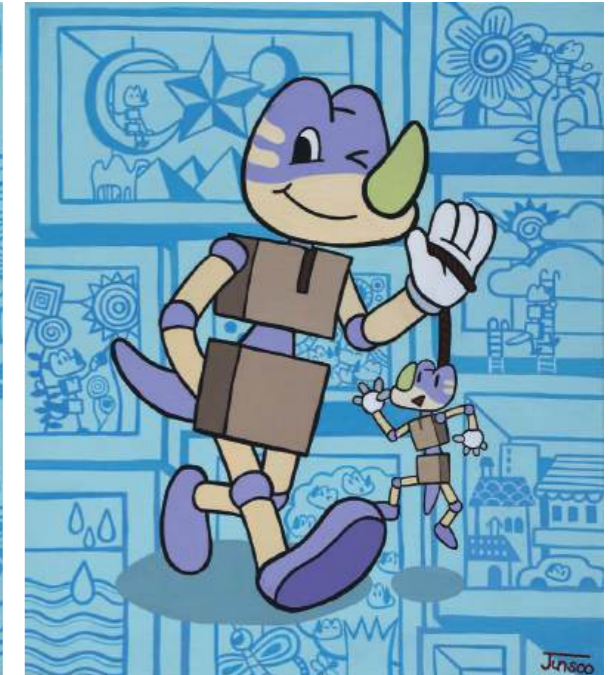
나의 상징
캔버스에 아크릴, 72×90cm, 2025



용감한 친구들
캔버스에 아크릴, 72×90cm, 2025



먹보 넥키(Necky)
캔버스에 아크릴, 53×45cm, 2025



해피 다피(Daffy)
캔버스에 아크릴, 53×45cm, 2025



개구쟁이 보노(Bono)
캔버스에 아크릴, 53×45cm, 2025



굿스마일 트릭스(Tricks)
캔버스에 아크릴, 53×45cm, 2025



큐리어스 이궁(E-goong)
캔버스에 아크릴, 53×45cm, 2025



티노(Tino)
캔버스에 아크릴, 53×45cm, 2025



박현우

박현우 작가는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상상 속 공간을 캔버스에 불러내어, 그 안에서 함께 놀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표현한다. 밝고 친구 같은 느낌의 캐릭터들을 좋아해서 ‘카트라이더’ 속의 캐릭터나 ‘우비소년’처럼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힘이 되는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는 그는, 그림 속 인물도 항상 즐겁고 다정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주로 그림을 그리며 일상을 보내지만, 비올라 연주나 농구 등 다채로운 취미와 일상은 그림 속에서 풍성한 이야기로 펼쳐지며 생동감을 더한다.

그는 선명한 색과 다양한 형태 속에서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상상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아크릴 물감과 수채화로 작업하는데, 종이에 물감이 번지면서 색이 스며들어 부드러운 질감이 드러나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 최근에는 동양화 종이인 장지에 채색하는 작업을 통해 매체를 확장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마주하는 이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Park Hyunwoo

Park Hyunwoo brings favorite friends and imagined spaces onto the canvas, depicting scenes where they play and talk together. Drawn to bright and friendly characters, he takes inspiration from figures that offer laughter and encouragement—such as characters from *KartRider* and *Raincoat Boy*. The people in his paintings are therefore always portrayed with joyful and gentle expressions.

While painting forms the center of his daily life, his varied interests—such as playing the viola and basketball—unfold as lively narratives within his work, adding vitality to each scene. He enjoys working with vivid colors and diverse form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his imagination. Using acrylic and watercolor, he is particularly fascinated by the way pigments spread and soak into paper, creating soft textures. Recently, h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painting on ‘jangji’, traditional Korean paper, as part of his exploration of materials.

He believes that “within a painting, anyone can become friends and speak comfortably”. Through his work, he hopes viewers can momentarily forget the fatigue of everyday life and experience a sense of warmth.



버스 타고 환상여행
종이에 아크릴, 73×122cm(73×61cm 2점), 2025



과수원의 연주회
나무 패널에 아크릴, 53×65cm, 2025



꿈나라, 별나라 여행
캔버스에 아크릴, 80cm, 2025



동화 속을 여행하는 호랑이
캔버스에 아크릴, 104×61cm, 2025



바다의 오케스트라
캔버스에 아크릴, 104×61cm, 2025



사파리의 점심시간
종이에 아크릴, 60×90cm, 2025



숲체원 계곡에서
캔버스에 아크릴, 73×91cm, 2025



신나는 놀이공원

장지에 먹, 아크릴 채색, 75×144cm, 2025

함성 속의 승부

장지에 먹, 아크릴 채색, 75×144cm, 2025



우비소년 바다에 가다

캔버스에 아크릴, 80cm, 2025



심규철

어릴 적 도라에몽과 짱구를 무척 좋아했던 심규철 작가는 늘 만화책과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 스케치북 한 면을 아주 조그맣게 나누어 작은 로봇과 무기들을 빼곡히 그려 넣었고, 그렇게 채워진 스케치북이 다섯 권이 되었을 즈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인이 된 지금, 그는 아주 작은 칸에 그리던 그림을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 이어 그리고 있다.

작가는 분할 화면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 캐릭터들을 한 화면에 모아 새로운 군상을 만든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캐릭터를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뒤 질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분할 화면 작품은 캔버스나 종이의 크기에서 오는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상상하는 세계관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극받고 확장되는 상상의 규모를 담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상상의 규모와 함께, 화면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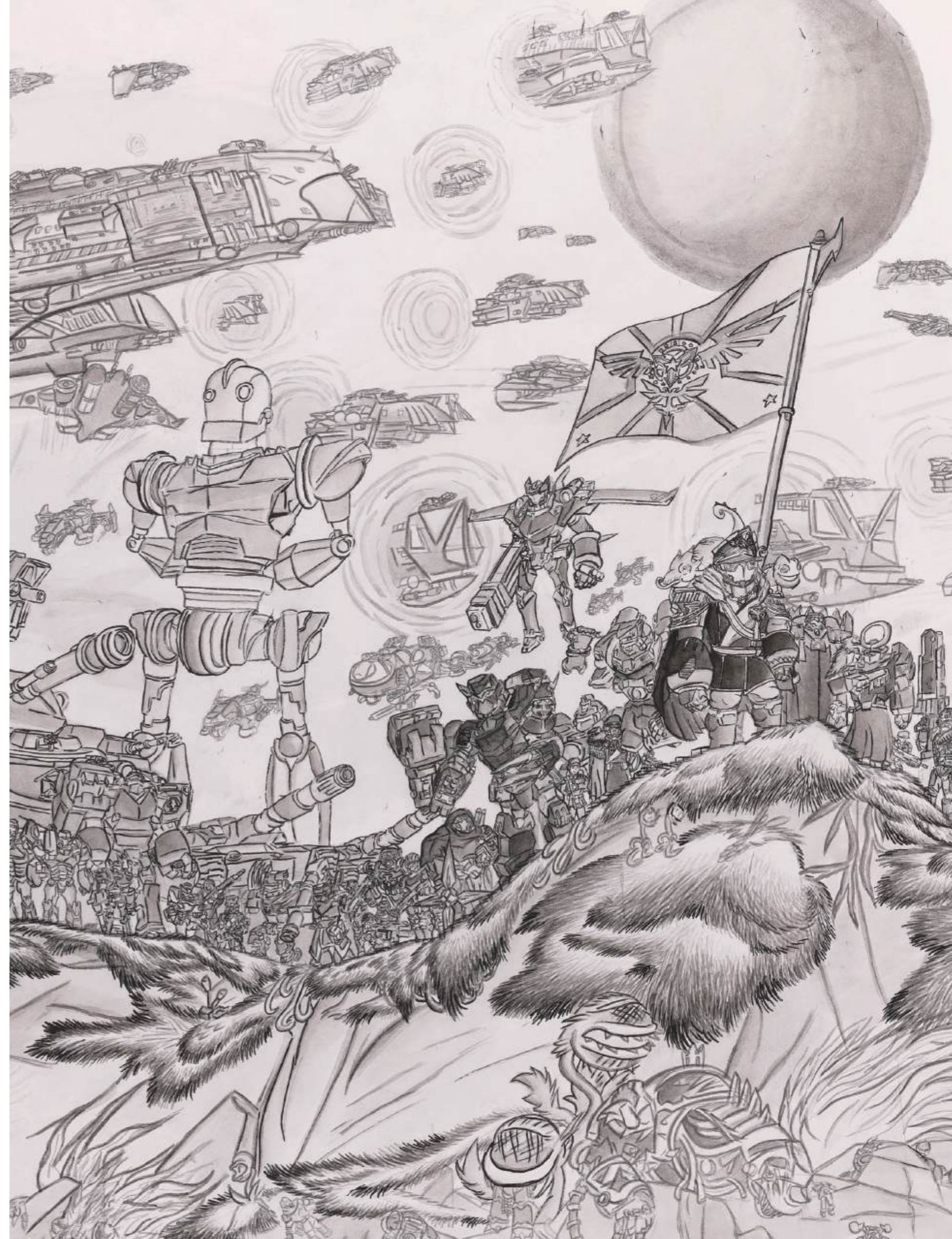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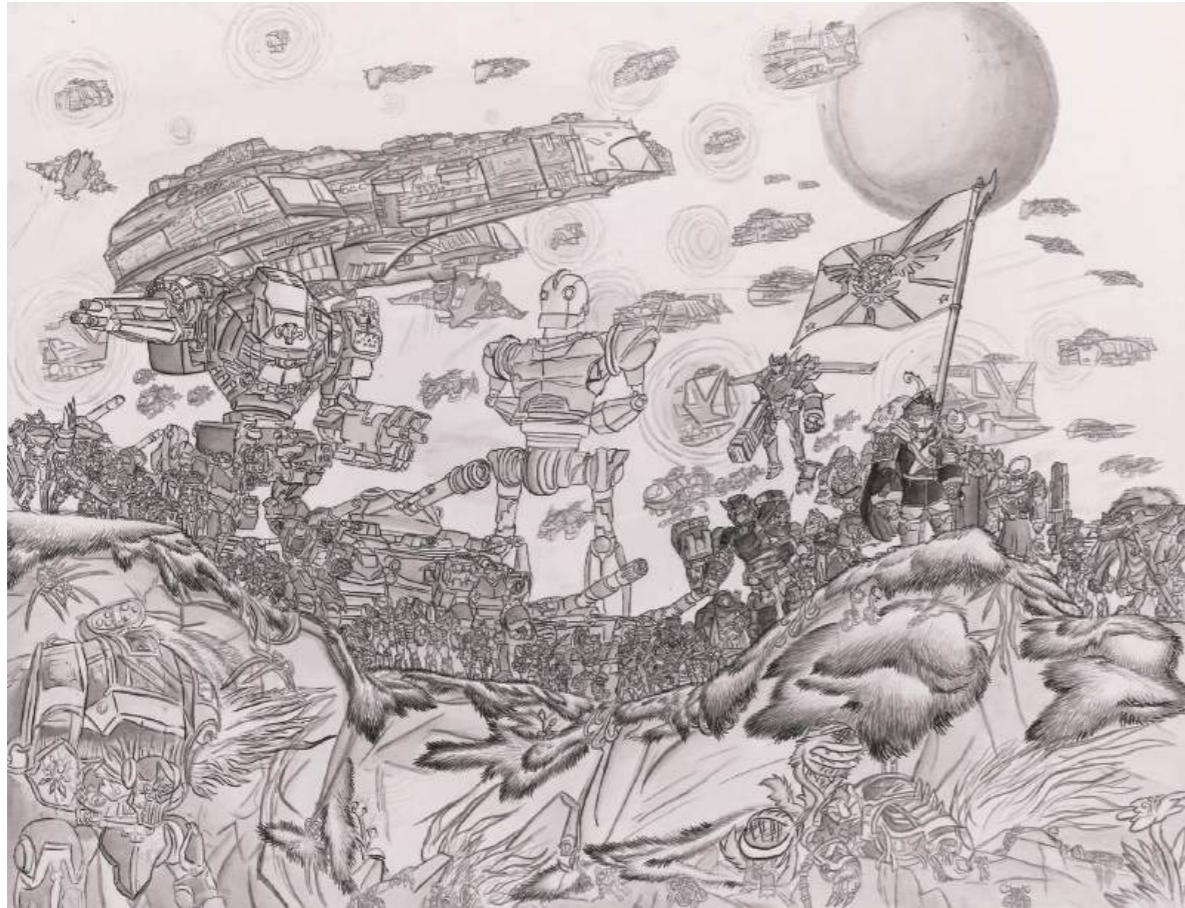
작가는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자신만의 색과 구성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들을 통해 낯설고도 흥미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작가는 그가 상상하는 세계들을 표현한 작업들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Shim Kyu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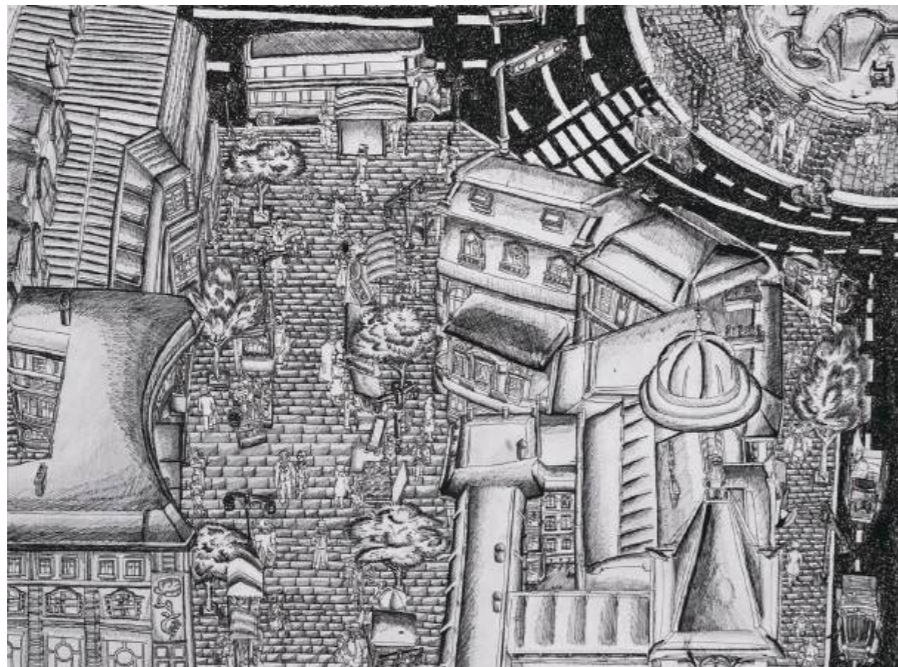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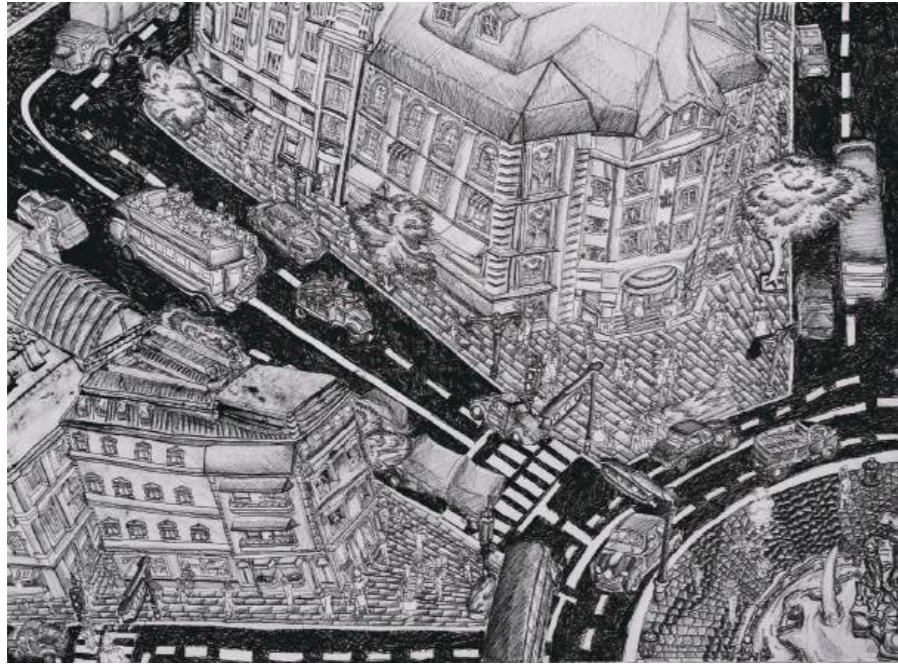
As a child, Shim Kyuchul loved *Doraemon* and *Crayon Shin-chan* and was rarely without a comic book or sketchbook in hand. He would divide each page into tiny sections, filling them densely with small robots and weapons. By the time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he had filled five sketchbooks in this way. Now an adult, he continues these drawings on a much larger scale, transferring what once fit into small compartments into expansive surfaces.

Using divided compositions, he brings together characters from animation and video games within a single frame, forming new groupings. This approach goes beyond simply arranging figures; it involves careful observation, analysis, and the reordering of visual elements. The segmented format is not a response to the limits of canvas or paper, but a way of expressing the ever-expanding imaginative worlds he envisions. As his imagination grows, so too does the scale of his com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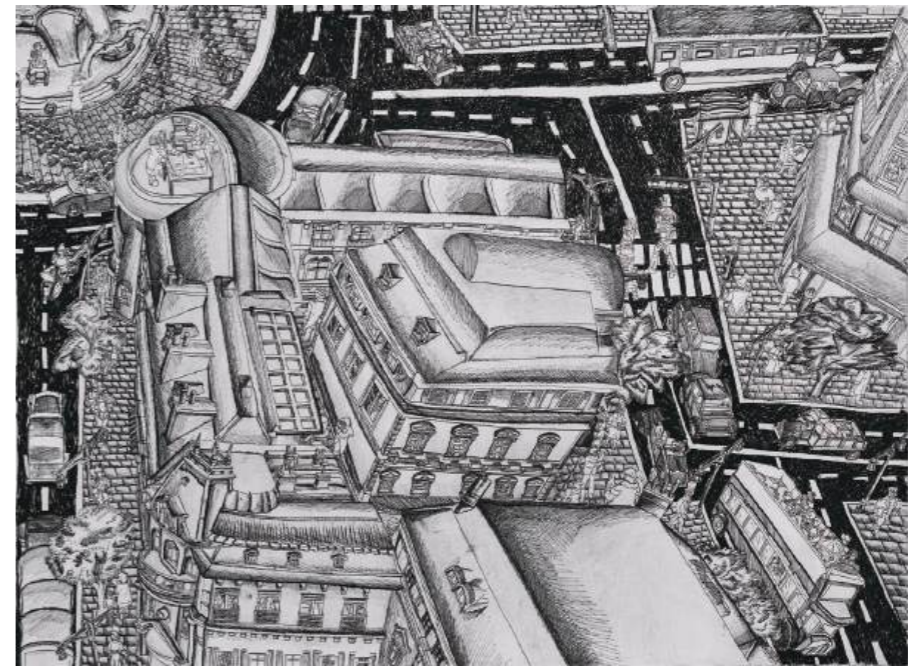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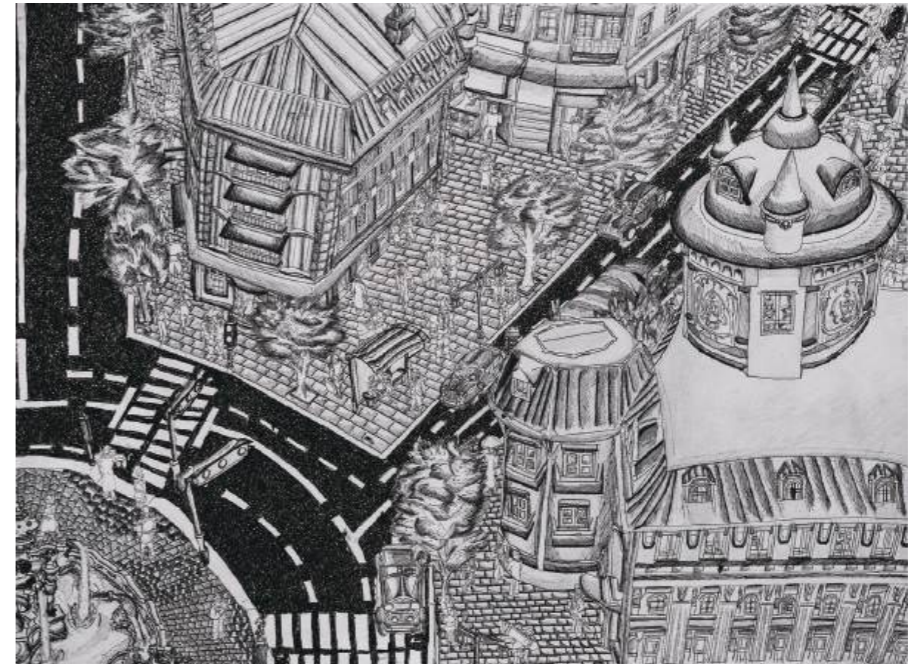
Through images that feel familiar yet reinterpreted through his own colors and structures, he creates worlds that are both intriguing and unexpected. He hopes his work can offer viewers a sense of enj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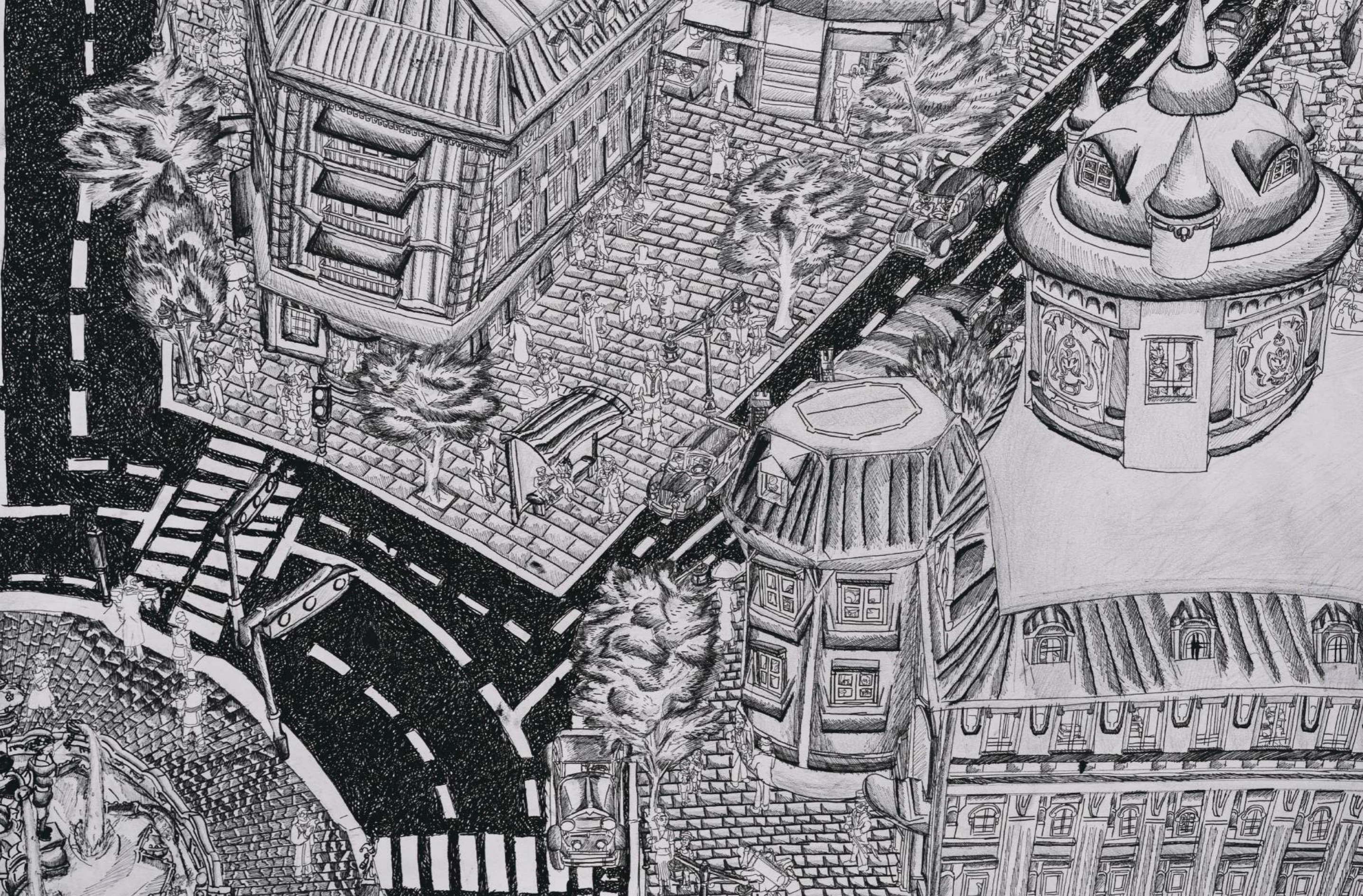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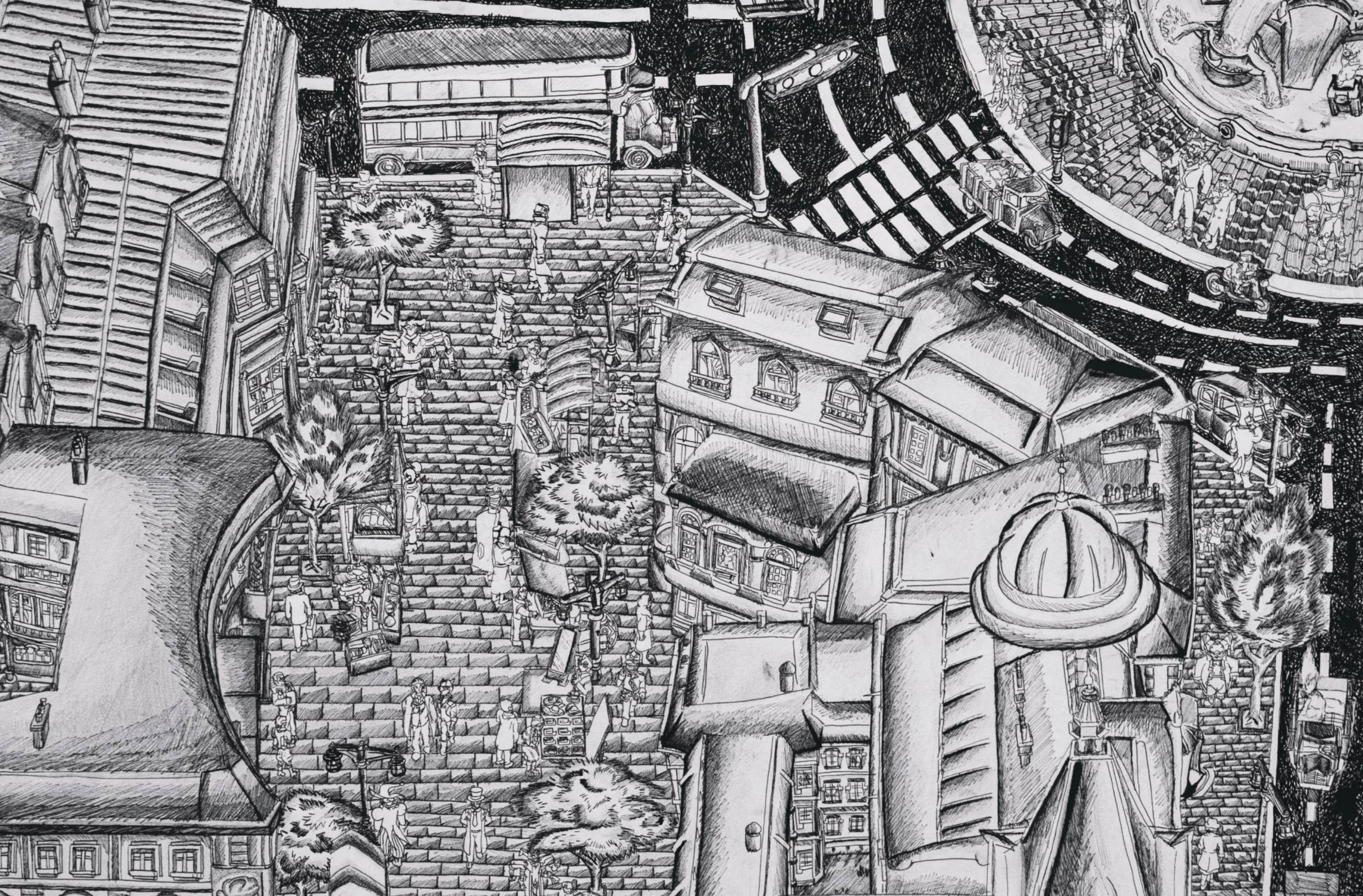
블랙 트루퍼 가드
한지에 먹, 97×145.5cm, 2025



파리와 내가 사랑한 것들
종이에 펜, 각 57×73cm, 2025









이민우

기묘한 이야기. 이민우 작가는 익숙한 장면들 속에서 낯선 세계를 발견하곤 한다. 그가 수집하고 재조합하여 꾸며낸 여러 순간, 장면들은 어느새 화면 안에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현실 세계의 규칙을 벗어나 있다. 어쩌면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속 장면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현실과 다른 세계가 서로 스치며 이상한 사건이 생기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모험을 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 말이다.

작가가 작업을 할 때는 화면이 가진 분위기, 색의 흐름, 형태의 기운을 느끼면서 어떤 요소를 넣고, 무엇을 생략하고, 어떤 장면을 바꿀지 계속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화면 안의 질서와 혼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며 새로운 세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들은 허구인 동시에 작가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하다. 사람들은 낯선 구조에 고개를 갇힐 수 있지만, 작가는 그 낯설이야말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느낀다. 그 낯설이, 새로운 상상의 문을 열어주는 결정적 열쇠라고 믿는다.

작가가 경험한 것들과 만들어낸 세계는 언제나 서로 닿아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 사이에서 작가가 발견한 조각들을 화면에 얹어놓으면, 일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 이민우 작가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잔상을 기록하며, 우리를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Lee Minwoo

“Stranger things.” Lee Minwoo often discovers unfamiliar worlds within familiar scenes. The moments and images he gathers, recombines, and reconstructs gradually form a world within the frame that moves beyond the rules of physical reality. His work recalls the atmosphere of *Stranger Things*, where reality and alternate realms brush against each other and unexpected narratives unfold.

In his process, he pays close attention to the mood of the image, the flow of color, and the energy of form, continually deciding what to include, what to omit, and what to transform. Within the frame, order and chaos, fact and fiction intermingle to create a new sense of reality. Though fictional, these constructed worlds feel as vivid to the artist as lived experience. Viewers may find these unfamiliar structures puzzling, but he sees this strangeness as central to the world he seeks to create. He believes that unfamiliarity opens the door to new realms of imagination.

His personal experiences and imagined worlds remain in constant dialogue, influencing one another. When fragments discovered in this in-between space are placed on the canvas, they take on meanings not found in everyday life. In this way, he records the afterimages of an unseen world, inviting viewers into a strange yet compelling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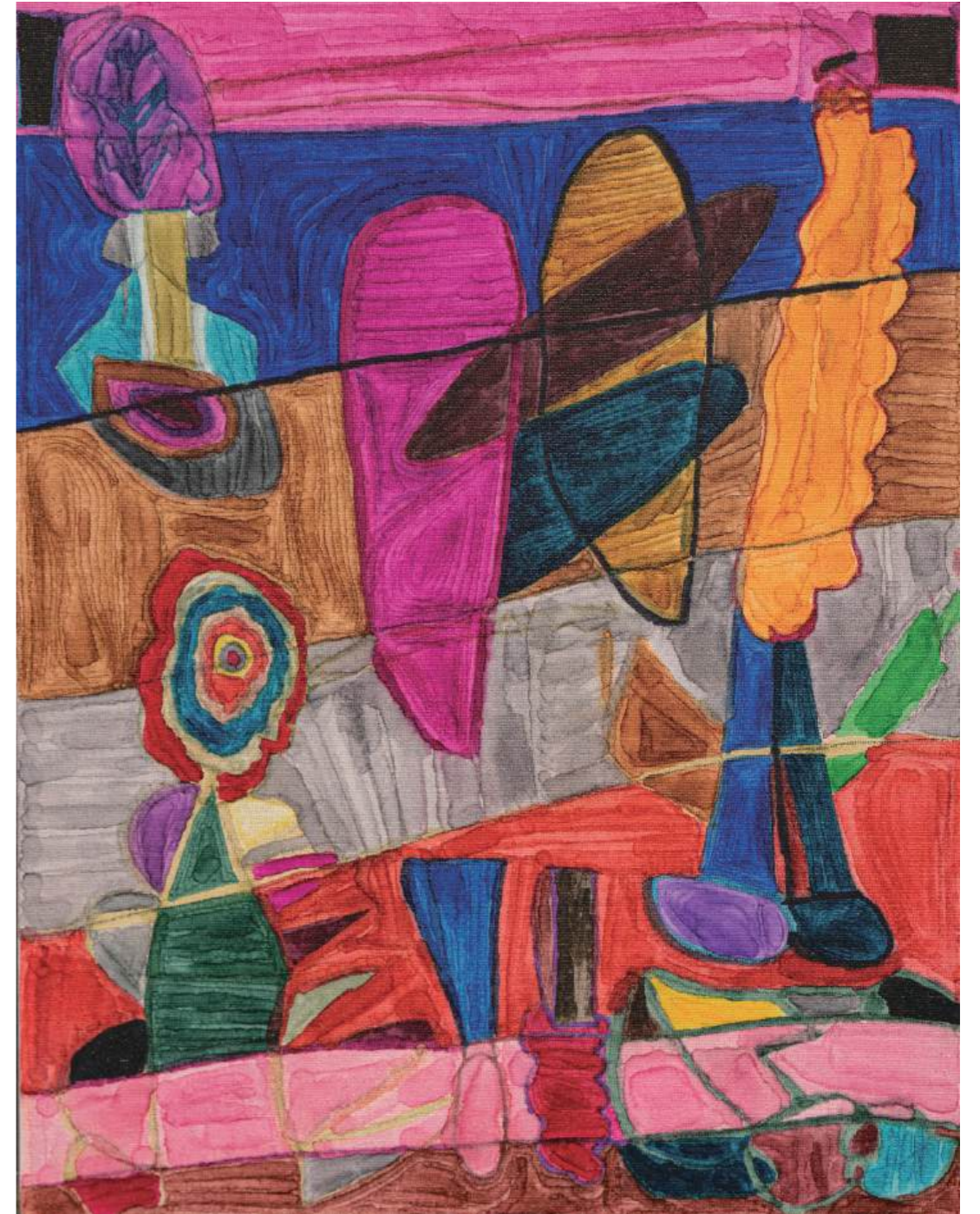
나 혼자 다 쓰는 집
캔버스에 수성 마커, 31.8×40.9cm, 2025



다시 돌아가기 위한 장치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53.0×65.1cm, 2025



멀리서 본 장면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53.0×65.1cm, 2025



소문을 너무 믿으면 안되는 이유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40.9×31.8cm, 2025



아무렇지 않은 상황, 여전히 안정적인 구조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53.0×65.1cm, 2025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그 빵에 대한 그리움이 샘솟네!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53.0×65.1cm, 2025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너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90.9×72.7cm, 2025



확대된 장면
캔버스에 아크릴, 수성 마커, 90.9×72.7cm, 2025



전민재

전민재 작가의 그림에는 언제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구체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친근한 일상의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들은 동시에 아득히 멀리 떨어진 작가만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늘 관객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으며, 이러한 감각이 그의 작업을 구성하는 핵심적 매력으로 자리한다.

작가는 어떤 소재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흡수하며, 현실과 닿아 있으면서도 독립된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의 작업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풍경 속에는 익살스러움, 해맑음, 그리고 차분한 정서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단순히 귀여움이나 순수함으로 설명되지 않는 더 넓은 감정의 폭을 드러낸다. 밝음과 외로움이 동시에 자리한 이 이중적 감각이 그의 그림에 긴장을 부여하고, 관람자를 오래 머물게 만든다.

그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풍경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살아가는 장소처럼 다가온다. 화면 속 골목과 모래사장, 바람 부는 들판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전민재 작가와 마주칠 것만 같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고독, 그리고 순수한 시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관객을 자신이 만든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Jeon Min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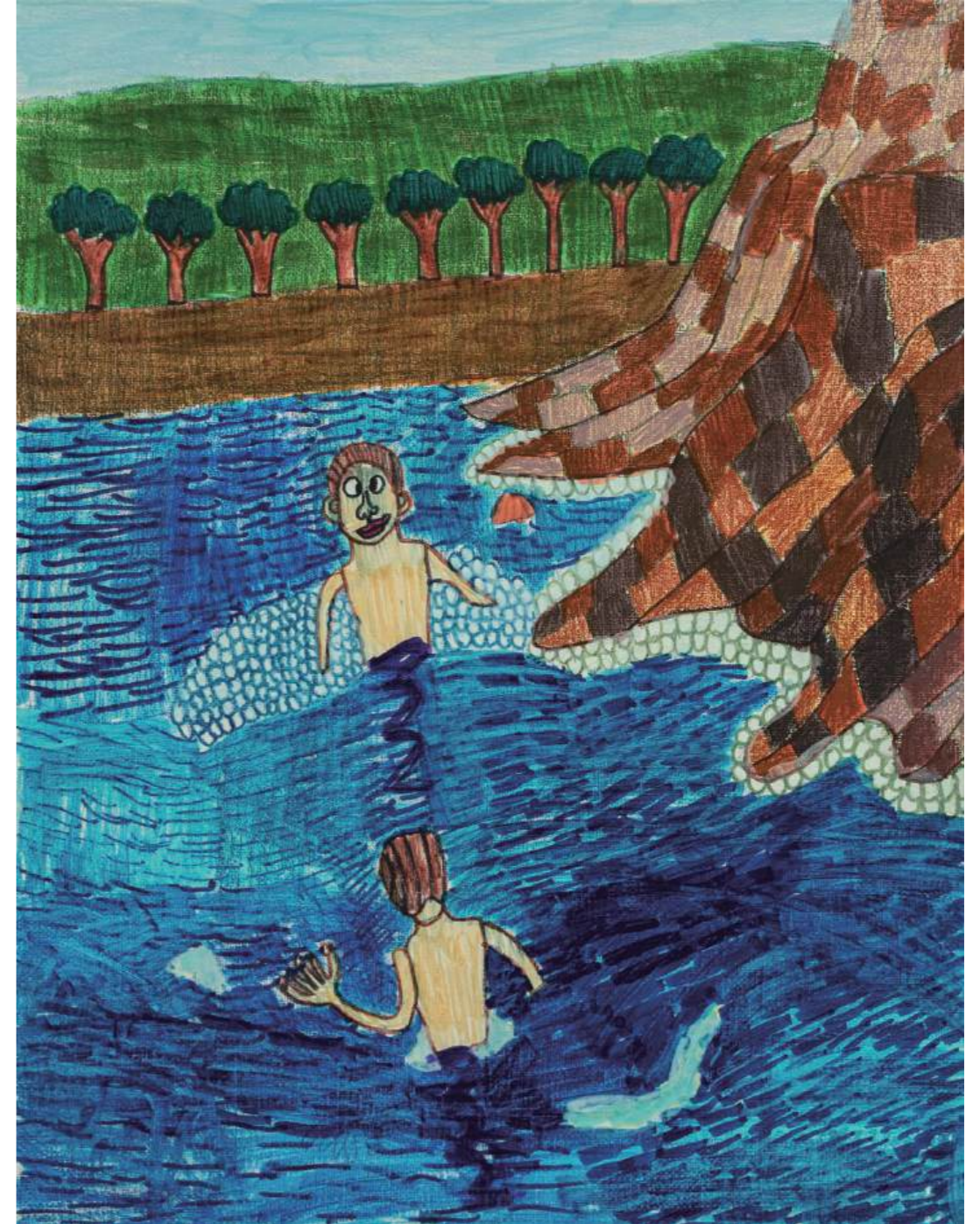
In Jeon Minjae's paintings, specific situations unfold like scenes from a film. What at first seems to be a glimpse of familiar daily life gradually reveals itself as a world uniquely his own, set at a subtle distance from reality. The expressions and gestures of his figures are understated, yet they carry a quiet force that draws the viewer in—an understated sensibility that lies at the core of his work.

He absorbs any subject through his own lens, shaping a world that remains connected to reality while existing independently from it. Across the varied landscapes in his paintings, playfulness, innocence, and calm naturally coexist, expressing an emotional range that extends beyond simple notions of cuteness or purity. This dual quality—where brightness and solitude inhabit the same space—creates a gentle tension that encourages the viewer to li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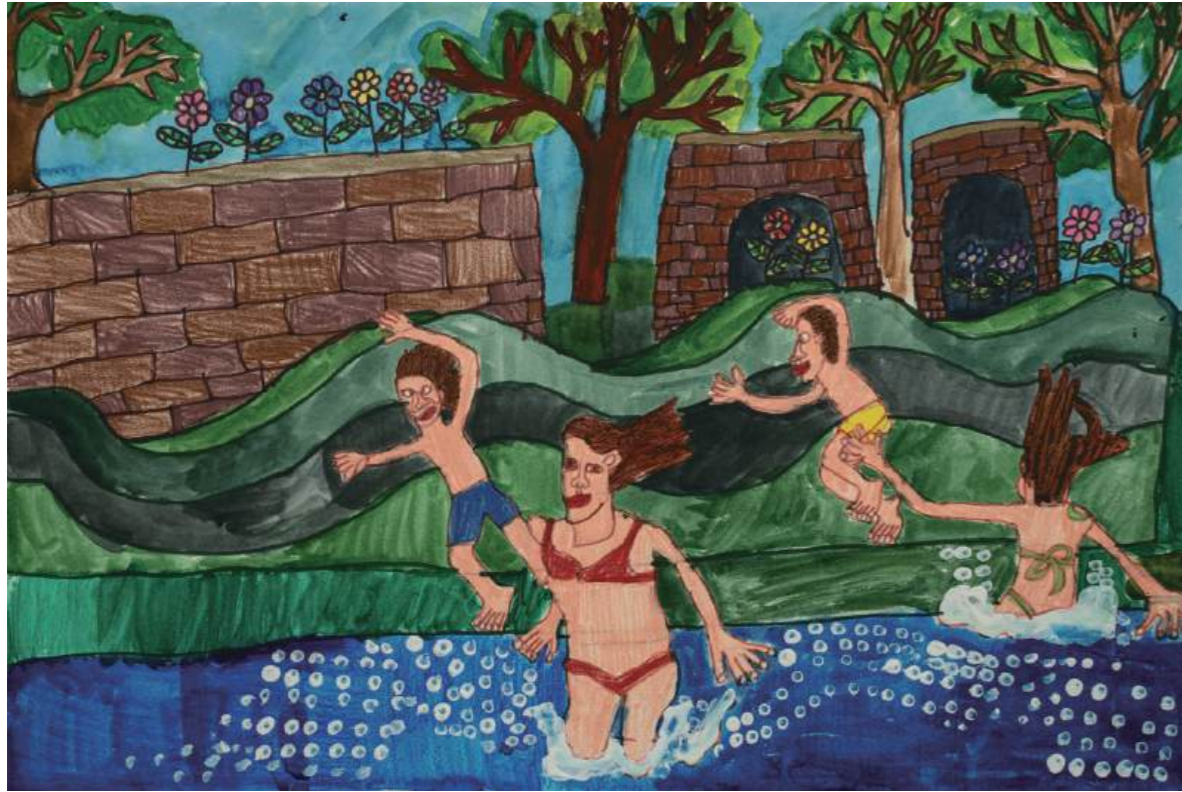
As one looks at his work, the settings begin to feel less like depictions and more like places where someone truly lives. Moving through the alleys, sandy shores, and windswept fields within the frame, one almost expects to encounter the artist himself. Through the honest expression of his emotions, solitude, and unguarded gaze, he quietly invites viewers into the world he has created.



눈 감은 사람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0.5×45.5cm, 2025



물놀이하는 사람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4.8×27.4cm, 2025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0.5×45.5cm, 2025



물에 발 담근 사람들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0.5×45.5cm, 2025



물이 있는 집
캔버스에 아크릴, 마커, 45.5×53cm, 2025



수영하는 사람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0.5×45.5cm, 2025



수영하는 사람들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0.5×45.5cm, 2025



어푸어푸하는 사람들
종이에 수채 물감, 색연필, 마커, 30.5×45.5cm, 2025



주스 파는 아저씨
캔버스에 아크릴, 마커, 53×65.1cm, 2025





최승완

알려주고 싶은 풍경. 최승완 작가의 작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눈앞에 오래 남아 있는 것들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이것을 '수집'이라고 부른다. 이 수집은 의도적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행위라기보다, 그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가깝다. 뉴스 화면, 길 위의 건물, 산의 풍경, 사람들 사이의 움직임 같은 일상의 파편들은 작가의 시선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풍경이 된다.

작업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은 '측정'이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건물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의 높이를 측정해왔다. 그가 재고 기록하는 숫자들은 작가와 환경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자, 대상에 접근하는 작가만의 언어가 된다.

이 두 행동-수집과 측정-은 그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작가는 일상과 사회적 장면을 관찰하는 데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특별함을 그림으로 번역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된다. 높이를 측정해 누군가에게 알려주듯, 작가는 자신이 바라본 세계를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작가가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묵묵히 지속해온 행동이며, 그가 예술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진지한 태도이다.

Choi Seungwan

Landscapes to share. Choi Seungwan's work begins with things that remain in his sight for no particular reason. He calls this process "collecting." Rather than an intentional act of selection, this collecting is closer to the way he forms a relationship with the world. Fragments of everyday life—news screens, buildings along the street, mountain vistas, and the movements between people—naturally gather into a single landscape within his gaze.

Another essential action that sustains his practice is "measuring." For a long time, the artist has carried a tape measure with him, recording the heights of spaces such as buildings and parking lots. The numbers he notes trace the boundary between himself and his surroundings, becoming his own language through which he approaches his subjects.

These two actions—collecting and measuring—form the foundation of his artistic world. Beginning with observations of daily and social scenes, he translates the particularities he discovers into paintings that connect him to the world in his own way. Much like sharing a measurement he has recorded, he seeks to convey the world as he has seen it through his work. This quiet, long-held practice reflects the most sincere and essential attitude with which he approaches art.



높이 제한을 안내합니다
종이에 아크릴, 36.0×53.0cm, 2025



알려주고 싶은 풍경(공사장)
캔버스에 아크릴, 72.7×90.9cm, 2025



높이 제한을 안내합니다
종이에 아크릴, 36.0×53.0cm, 2025



알려주고 싶은 풍경(챌린지 스테이션)
종이에 아크릴, 36.0×53.0cm, 2025



알려주고 싶은 풍경(공사장)
 캔버스에 아크릴, 91.0×116.8cm, 2025



알려주고 싶은 풍경(동네 거리)
 캔버스에 아크릴, 72.7×90.9cm, 2025



높이 제한을 안내합니다
종이에 아크릴, 36.0×53.0cm, 2025



알려주고 싶은 풍경(주차장)
캔버스에 아크릴, 72.7×90.9cm, 2025



피주헌

피주헌 작가에게는 확고한 '나의 세계관'이 존재한다. 그는 현실의 요소들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이어 생각하고 탐구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처음 작품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을 표현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감상하다 보면 그림 속에 숨은 뜻을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시간의 흐름을 그림에 담는다. 인물을 그릴 때는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감정·감각·느낌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해서 도형·선·점·색 등으로 표현한다. 이는 대상의 형상보다는 작가의 감정과 느낌에 중심을 둔 표현이다.

반면 식물을 그릴 때는 꽃이 핀 순간만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도형·선·점·색 등을 활용해 줄기 내부의 시간 흐름이 드러나도록 묘사하며, 식물이 꽃을 피우기까지 거처온 인고의 과정을 정성스럽게 담아낸다.

Pi Juhun

Pi Juhun has a distinctly defined personal worldview. He draws elements of reality into this inner framework, expressing through painting his process of contemplation, exploration, and interpretation. At first glance, it can be difficult to identify exactly what is being depicted; however, with time and attentive viewing, the hidden meanings within the work gradually reveal themselves.

The artist gives visual form to elements that are not immediately visible and incorporates the passage of time into his images. When portraying human figures, he does not focus on their outward appearance. Instead, he examines his own emotions, sensations, and impressions of the subject, translating them into dots, lines, shapes, and colors. His approach prioritizes internal perception over external re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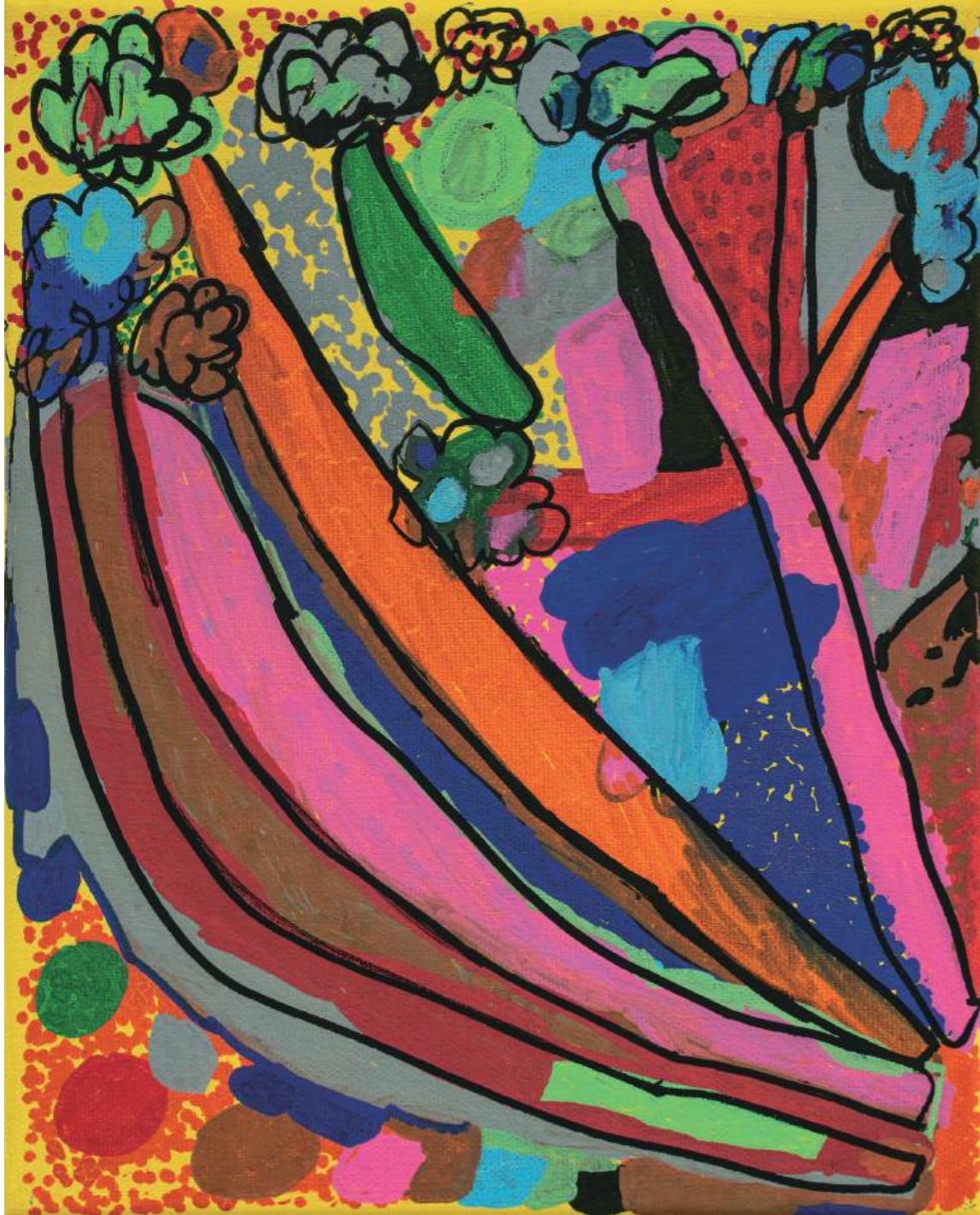
When depicting plants, he likewise avoids capturing only the moment of bloom. Using geometric forms, lines, dots, and color, he reveals the flow of time within the stem, carefully conveying the quiet process that precedes the blossoming.



감정의 영역들
캔버스에 아크릴, 73×60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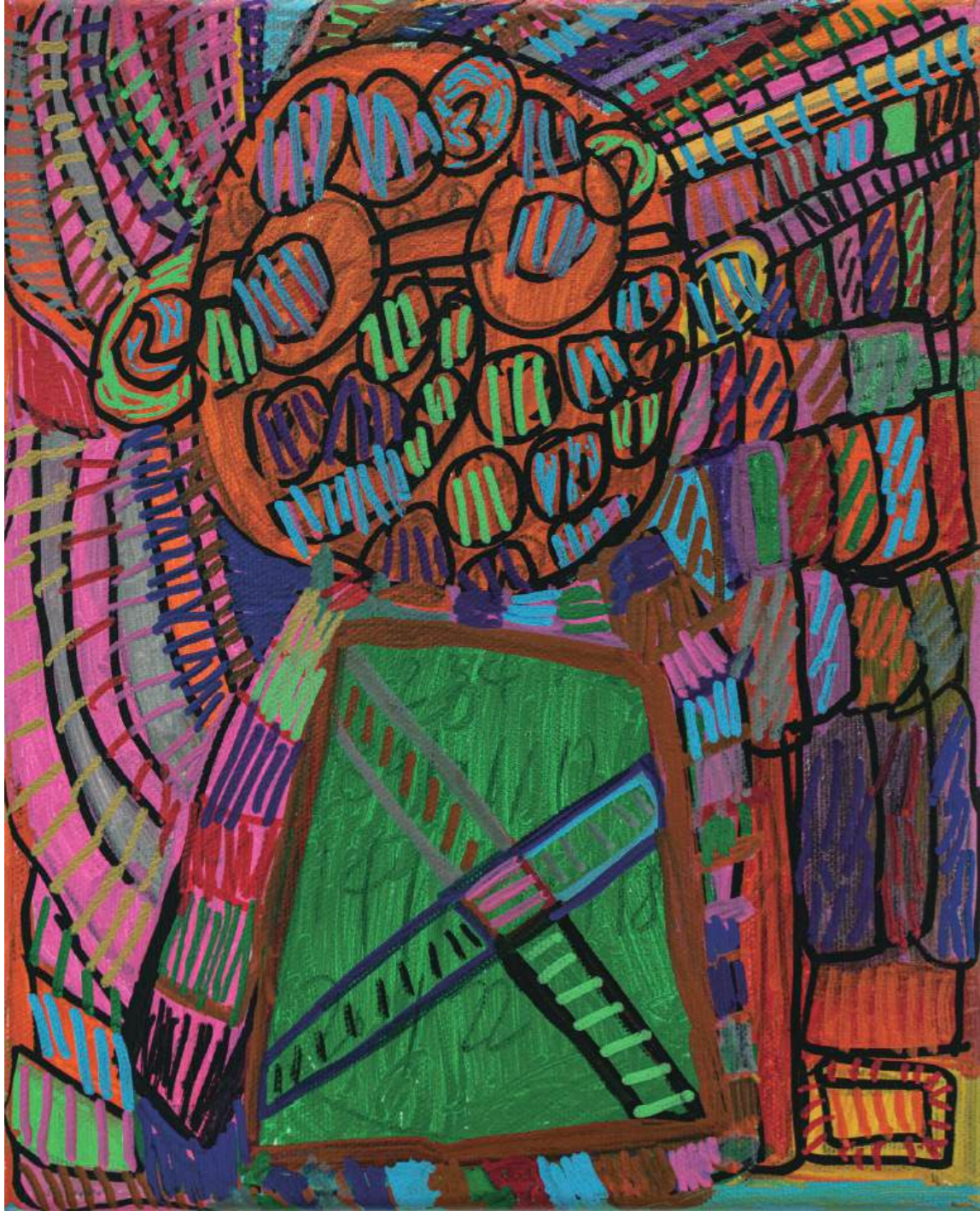
감정의 자화상
캔버스에 아크릴, 27.5×22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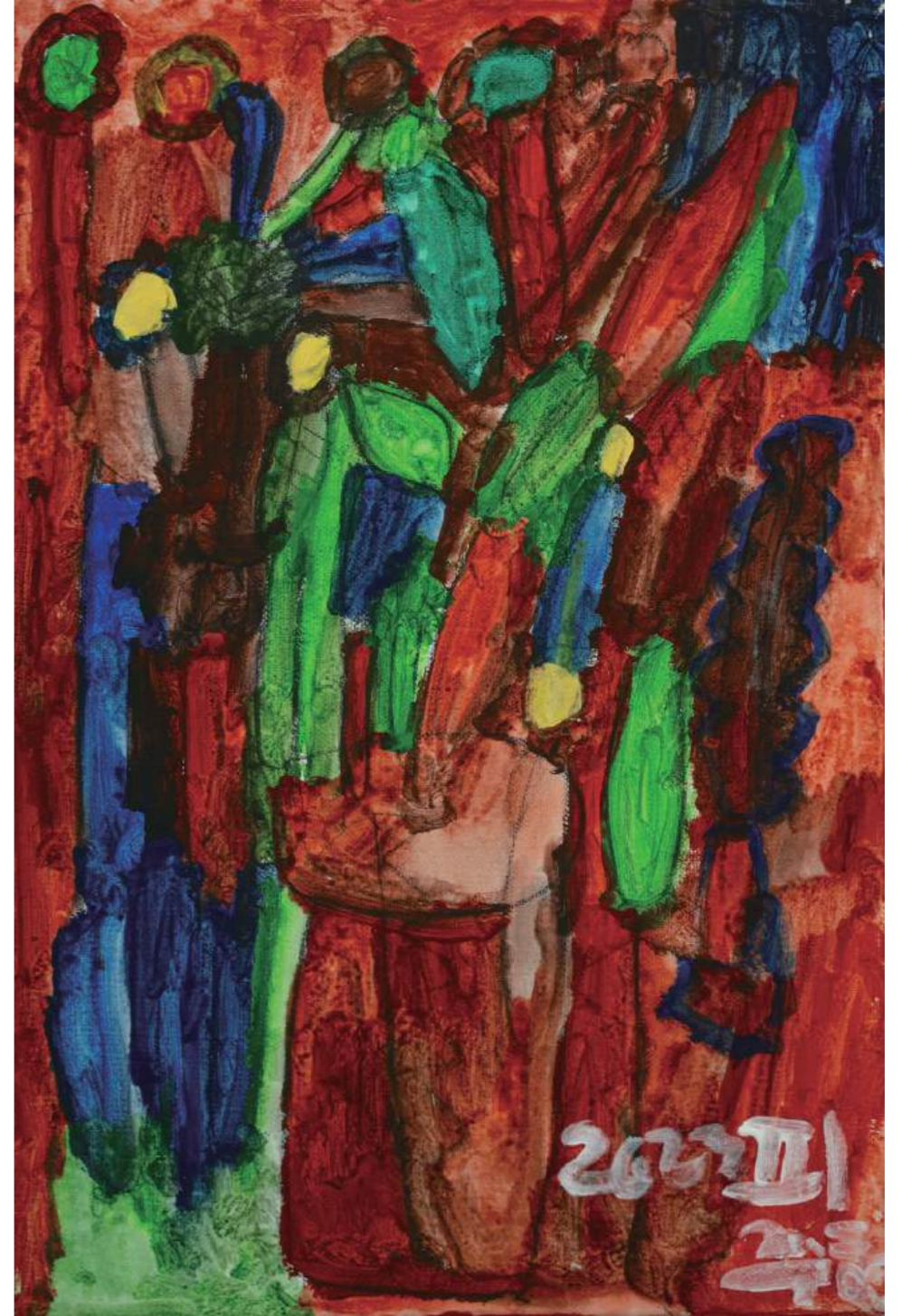
강인한 줄기 화려
캔버스에 아크릴, 27.5×22cm, 2025



결이 다른 얼굴
캔버스에 아크릴, 27.5×22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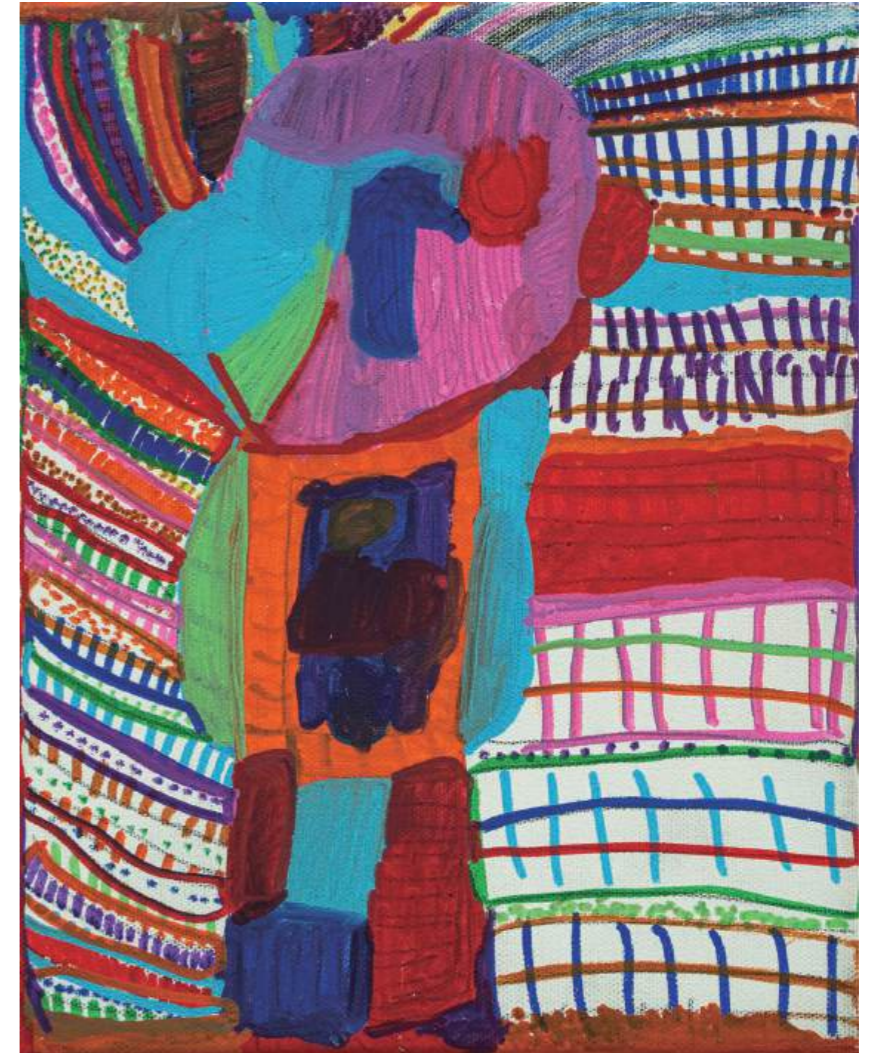
복잡 단순 인물화
캔버스에 아크릴, 27.5×22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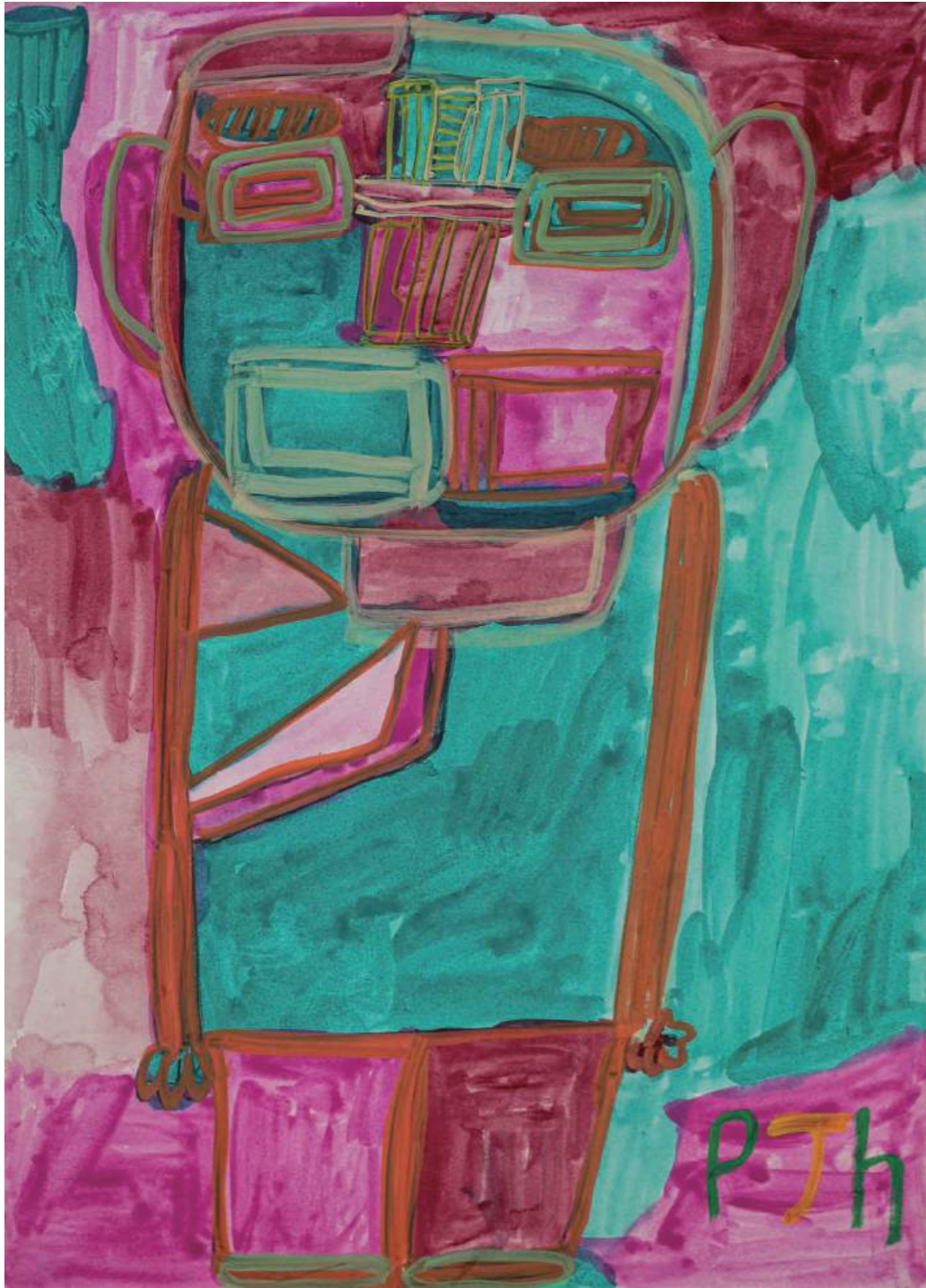
빛과 그림자
캔버스에 아크릴, 27.5×22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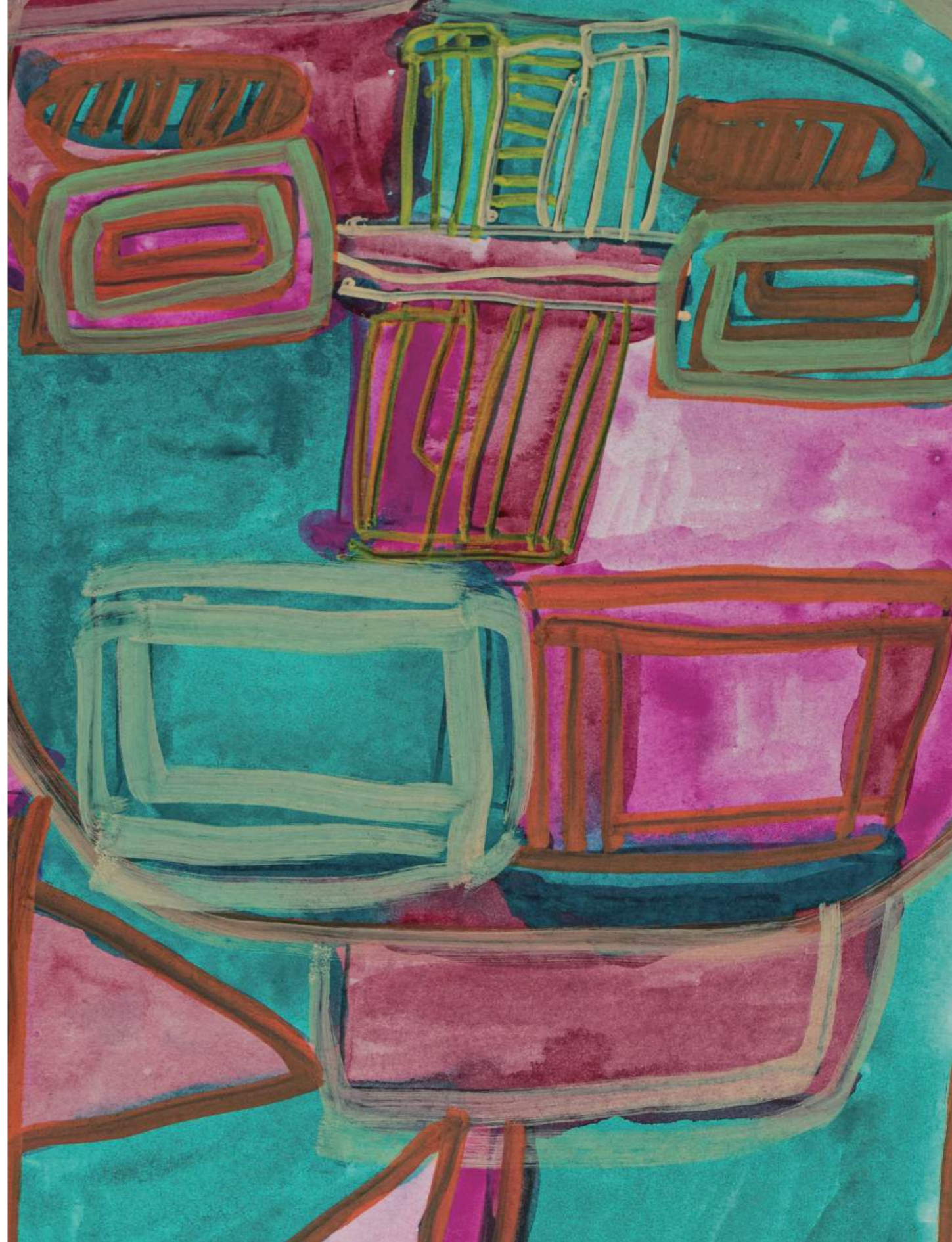
투명한 자화상
캔버스에 아크릴, 52.5×45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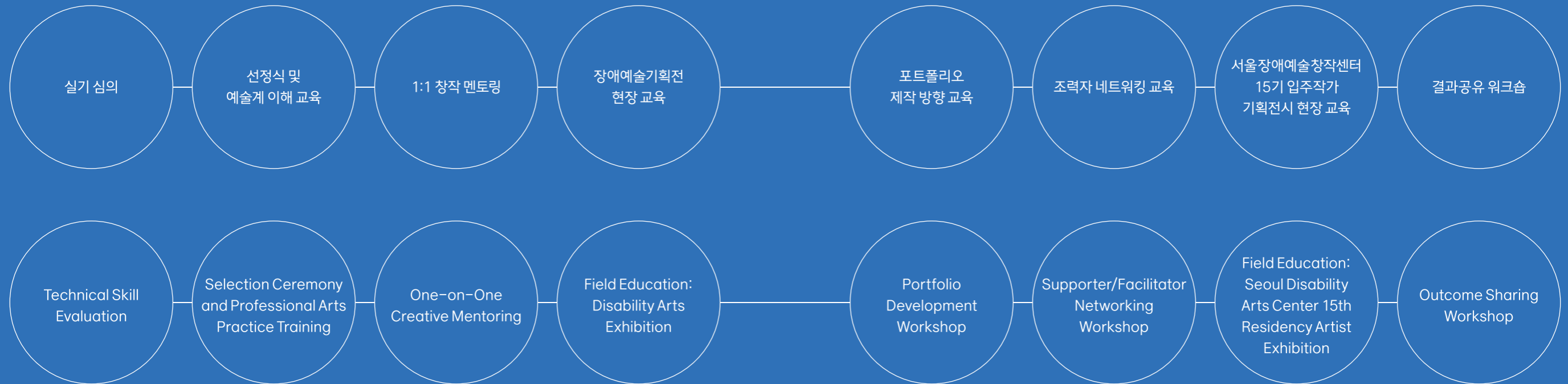


펼쳐진 감정의 감각
캔버스에 아크릴, 27.5×22cm, 2025



표현된 감정
캔버스에 아크릴, 39×54cm, 2025







실기 심의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시각예술 분야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를 대상으로 지원서와 실기 심의를 통해
참여 작가 선정





식순		
1부	<우리시각> 사업 개요	15:00 - 15:15
	집체교육	15:15 - 16:00
	최희승 큐레이터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로서 예술계 진입을 위한 이해 교육	
2부	선정식	16:00 - 17:00
	<우리시각> 선정증 수여식 / 멘토-선정자 그룹 미팅	

선정식 및 예술계 이해 교육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2025 <우리시각>에 최종 선정된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 10명에게 선정증 수여
예술계 진입을 위한 이해 교육 진행





1:1 창작 멘토링 2025년 6월 ~ 11월

전문 미술작가와의 맞춤형 1:1 창작 멘토링 교육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멘토님과의 교류를 통해 기존에 다루지 않던 재료나 기법들을 새로이 배우고,
그림 그리는 데 큰 도움을 받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hrough my interactions with my mentor, I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new materials
and techniques I hadn’t worked with before. It was a joyful and meaningful experience
that greatly enriched my painting practice.”



“미술 수업을 일대일로 해서 미술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Through personalized one-on-one lessons, I received valuable support in growing as an artist.”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My mentor’s kind guidance made the sessions truly enjoyable.
Throughout the program, I felt a strong sense of fulfillment and happiness.”



“다양한 재료를 탐색한 경험을 계기로 이를 작품 활동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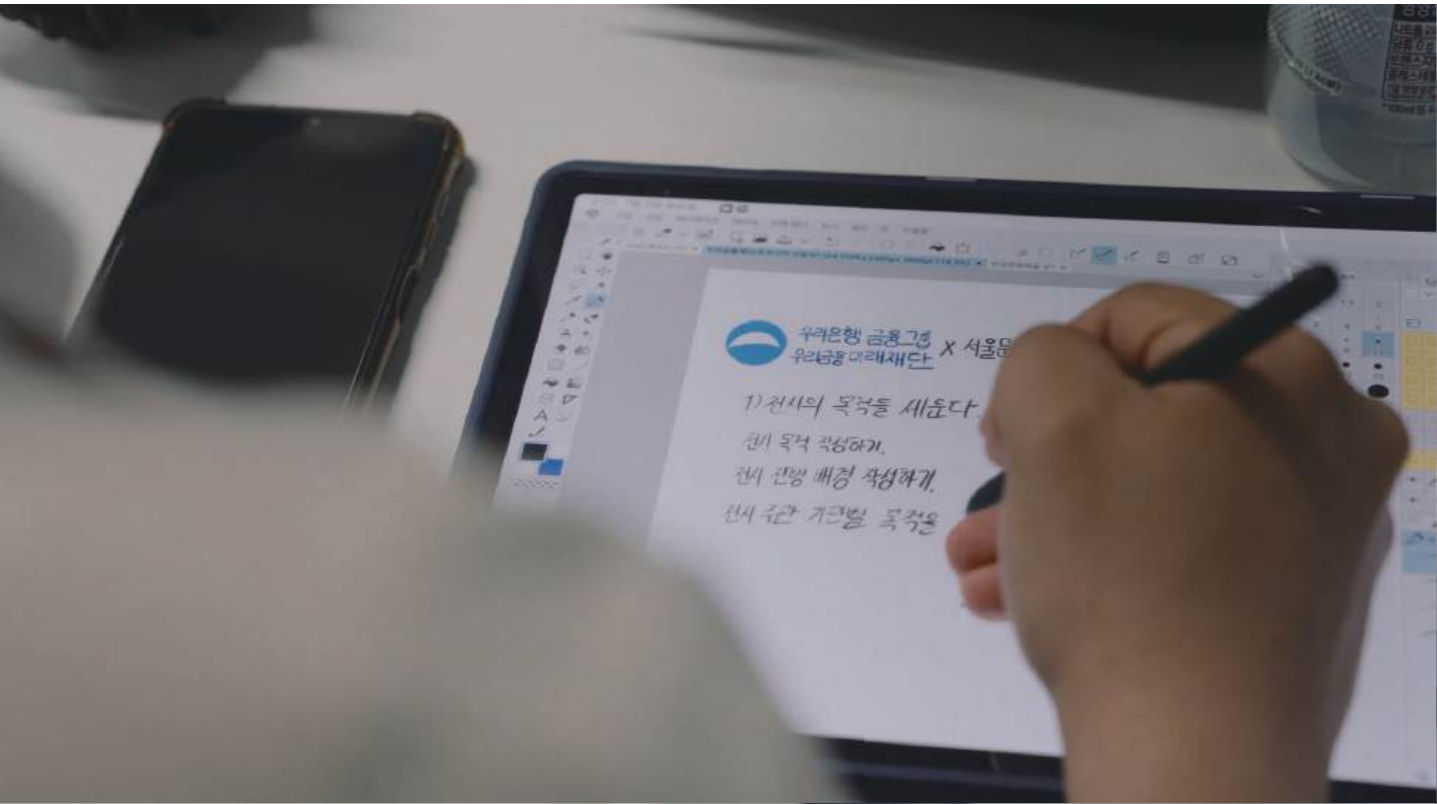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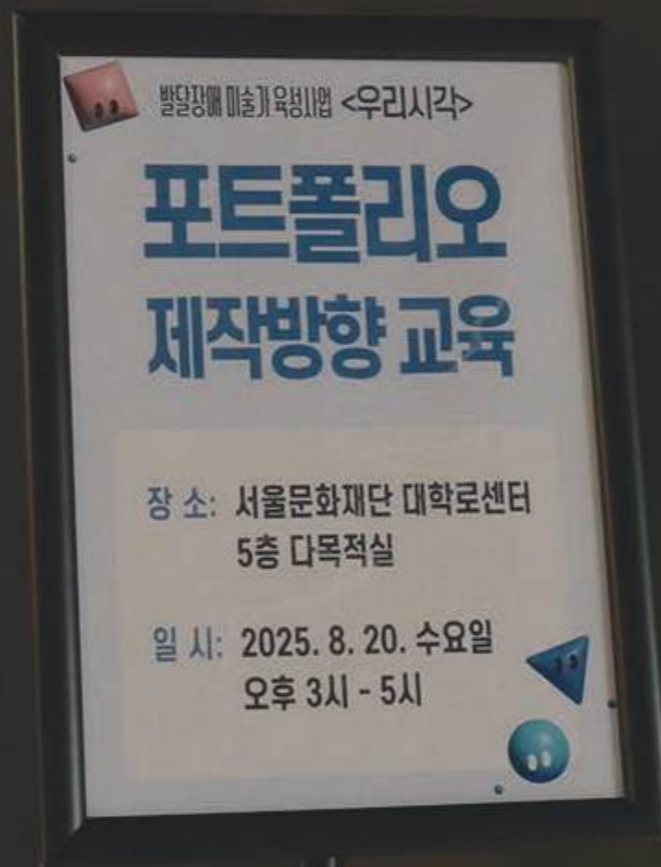
“Experimenting with various media allowed me to incorporate these discoveries into my work.”



DAY 1. 전시의 목적을 세운다.

- 전시 목적 작성하기
: 1-2문장 이내로 전시의 지향점 작성
- 전시 진행 배경 작성하기
- 전시 주관 기관별 목적을 생각하기
: 전시하는 기관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
: 공익/상업적인 목적인가?, 기업/관공서에서 주최하는가?, 기타 목적인가?
- 전시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장소 선정하기





포트폴리오 제작 방향 교육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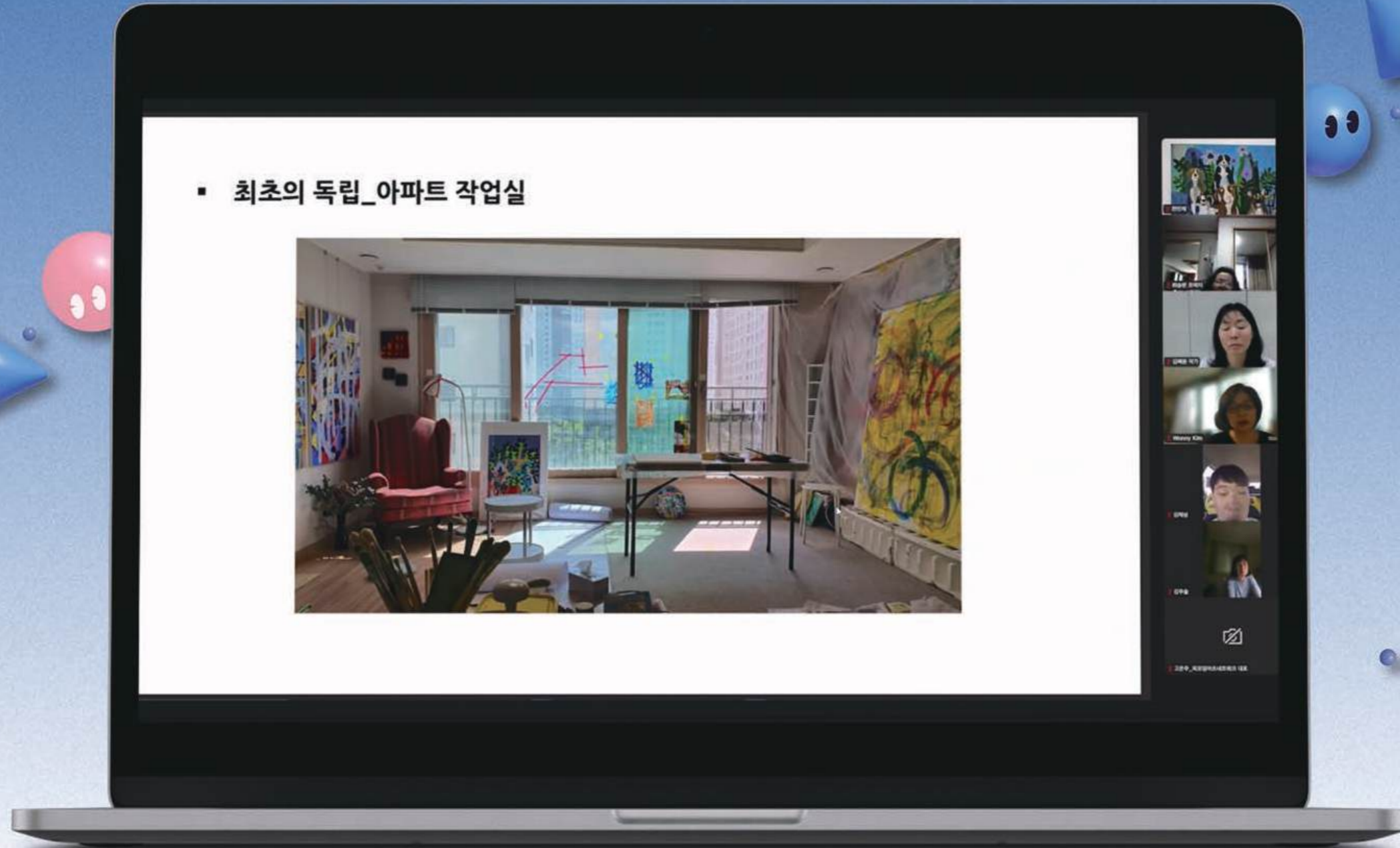
지속적인 작가 활동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업데이트 방법 교육 및 컨설팅



“포트폴리오 제작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 시간에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As I had never learned how to create a portfolio, I often wondered if I was doing it correctly.
The clear guidance provided during this workshop was incredibly helpful and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in the future.”



▪ 최초의 독립_아파트 작업실



1. '선정 작가'의 다음 준비: 포트폴리오 '제출용'에서 '제안용'으로

"나의 가능성을 봐주세요." → ✓ "나와 함께하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목적 (무엇을 원할까?)	재구성 전략
공공지원금	성장 가능성과 예술적 깊이 → 지원금을 통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나? 성장 가능성과 예술적 지향성이 있는 작가	성장 서사 강조 (시간(단계)순 배열, 대표작 전면 배치) → "저는 이렇게 성장했고, 앞으로 000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기업 협업	시장성과 활용 가능성 → 자사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고, 상품(굿즈) 개발 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	활용 가치 제안 (적관적 구성, 디자인 활용도 높은 작품 중심) → "제 작품은 당신의 브랜드에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아트페어	작품성과 컬렉션 가치 → 뚜렷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작가	독창적 세계관 부각 (연작(시리즈) 구성) → "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창의적인 작가입니다."





입주작가 기획전시 현장 교육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15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큐레이터와의 전시 투어·실무 교육



“선배 작가님들의 대형 전시를 직접 보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꿈과 열정이 커진 것이 멘티로서 가장 큰 수확이자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Seeing major exhibitions by established artists in person deepened my dream of exhibiting in similar spaces. For me, this renewed passion was the most meaningful growth I gained through the mentorship.”



결과공유 워크숍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2025 <우리시각>의 전 과정을 돌아보고
1:1 창작 멘토링을 통해 완성된 작품과 포트폴리오 발표



“사업 기간 동안 받은 여러 가지 교육이 앞으로의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The various sessions I participated in throughout the program will serve as a valuable foundation for my continued growth as an artist.”



참여 작가 소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봤지만, <우리시각>처럼 작가를 잘 이해해주는 멘토님과,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힘을 내서 작품활동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멘토님께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장점을 찾아낼 기회가 생겨 좋았고, 집체교육을 통해 즉문즉답하고, 다른 조력자 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우리시각>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각>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달장애 미술가 지원사업 중 독보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활동 하는 시간이 재밌고 즐거우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수업 때마다 칭찬과 격려로 지도해주신 멘토님과 사업 기간 내내 여러모로 수고하신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Participants' Testimonials

“Although I have participated in various projects, I have never experienced one like *Woori Visual Arts*, where mentors truly understand the artists and actively support their artistic practice. This opportunity has encouraged me to refocus and dedicate myself to my work once again.”

“I appreciated the opportunity to receive objective feedback from my mentor and to discover my strengths. I also found the group sessions very meaningful, as we could ask questions freely and learn together with fellow participant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involved in *Woori Visual Arts* for their help and support.”

“I believe *Woori Visual Arts* is a truly distinctive system among current support programs for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 hope the time I spend creating art can always be enjoyable and fulfilling. I approach my work with the belief that good work emerges from such moments.”

“I am deeply grateful to my mentor for the constant praise and encouragement during each session, and to all the staff members who supported us throughout the program.”

2025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결과자료집

기획/운영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사업 후원 우리금융미래재단

운영 지원 에이블라인트

참여 작가 김우솔, 김채성, 김혜윤, 박준수, 박현우
심규철, 이민우, 전민재, 최승완, 피주현

참여 멘토 김동기, 김수나, 김태협, 나오미, 최윤정

도움주신 분들

요지경필름 복도

황예인 홍상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길 31 자유빌딩 2층

Phone 02-423-6674

E-mail jamsil@sfac.or.kr

Instagram @sdac2007

이 책의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자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을 금합니다.

